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퇴장과 지속에 관한 연구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손종칠*, 함건**

<초록>

본 연구는 국민연금 빅데이터 모집단 자료를 바탕으로 전북지역 1958~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및 경기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시점과 당시의 소득 수준, 퇴직 이후의 일자리 이동 행태, 산업별 특징,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까지의 탐색 기간 및 근속 기간 등에 대한 방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북지역 1958~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평균 50.4세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거나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958~1963년생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 직장 가입자의 경우, 46세 이후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1년 더 오래 머무르는 경우 일년에 평균 19.6만 원(실질 기준 12.0만 원)씩 명목 소득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자영업자에서도 관찰되나 직장 가입자에 비해서 그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이후 일자리 이동 횟수는 생애 주된 일자리 소득과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주된 일자리 이동 횟수 1회와 10회 간의 소득 차이가 100~11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장 가입자만 대상으로 산업별로 살펴보면,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연령이 높은 경우 해당 업종에서의 소득 수준도 높아 두 변수 간 양(+)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1963년생 직장 가입자의 경우 46세 이후 주된 직장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까지의 탐색 기간은 평균 26.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실제 구직활동 시간과 함께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 재교육 기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퇴직 연령별로 보면 46~50세까지 일자리 탐색 기간이 증가하다 이후 연령이 높아지면서 탐색 기간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1963년생의 경우 주된 직장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에서의 근속 평균 기간은 27.2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 종료 및 시작 횟수는 평균 2~4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높으며 탐색 기간이 길었던 산업에서 이후의 근속 기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경기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후의 소득과 일자리 이동에 관해서 살펴본 결과, 대체로 전북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북 및 경기지역의 1961~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직장 가입자 기준 50세 이후의 계속노동 결정 요인에 대한 로짓모형 추정결과, 전북지역의 경우 50세 이전에 일찍 퇴직하는 경우 이후 더 많은 일자리 이동 경험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시점의 소득이나 남녀 성별은 50세 이후의 직장 생존 여부에 별다른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지역 1963년생 직장 가입자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남녀 간에 계속노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북지역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핵심주제어 : 베이비붐 세대, 은퇴, 퇴직, 일자리이동, 직장탐색, 근속연수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J26, J31, J62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 한국은행 전북본부

+ 본 연구는 2023년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외부연구용역 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머리말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026년에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으로 정의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는 1955~1963년에 태어난 소위 베이비붐 세대(약 730만 명)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 중 가장 나이가 적은 1963년생도 현재 59세로 생애 주요 직장에서 퇴직했거나 퇴직을 목전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OECD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늦은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우리나라 고령 인구를 고려할 때 해당 세대는 비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다양한 형태로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배경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시점, 이후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하여 종사상 지위의 변화, 소득의 변화, 일자리 이동 횟수, 산업별 분포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거시자료와 샘플링에 기초한 미시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특징에 대한 연구가 다수 시도되었고 할 수 있다. 즉, 이전 연구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하나의 인구집단으로서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으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실제 노동 및 소득 활동에 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연구에 대비하여 본 연구의 특징과 기여는 기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특정 출생연도의 베이비붐 세대 전수를 이용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전수 자료에 기초하여 전북지역의 1958~1963년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퇴장과 지속에 대한 방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출생연도별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시점과 당시의 소득 수준, 퇴직 이후의 일자리 이동 행태, 산업별 특징,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까지의 탐색 기간 및 근속 기간에 대한 방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비교집단으로서 경기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를 특정해서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후 전북지역 해당 베이비붐 세대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II 장에서는 국내외의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퇴장과 지속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본다. III 장에서는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존 설문조사에 기초한 서베이 자료를 검토한다. IV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 1958~1963년 출생연도별로 노동시장 퇴장과 지속에 관해 분석을 수행한다. 아울러 경기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도 그 특징을 간략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V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는 한편,

해당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II. 기존 논의

1955~1963년생으로 범주화되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700만 명을 넘어서는 인구 집단이며 전체 인구의 14%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0년에 해당 베이비붐 세대가 47~55세가 되면서 이들 인구 집단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징 규명과 함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노동시장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2010년에 주목하는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 중 첫 출생연도 집단인 1955년생이 2010년 당시에 기업의 일반적인 정년 연령인 55세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로는 방하남 외(2010), 윤석명 외(2011), 2013(박태정), 김희정·천혜정(2016), 함창모·남윤명(2018) 등이 있다. 우선 방하남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흔히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0년대 유년기에는 절대빈곤의 시대를 겪었고 10~20대였던 1960~1970년대에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살아야 했다. 이후 1980년대 사회에 진출한 이들은 경제적 성장의 열매와 함께 안정적인 중산층을 꿈꾸었으나, 인생 경력의 정점을 향해가던 34~42세에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11년 뒤인 45~53세 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며 심각한 일자리 및 소득 하락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명 외(2011)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 원천인 관계로 은퇴와 동시에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자산의 8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 전후의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의 주택 공급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동 세대는 부모 및 자녀부양 부담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방하남 외(2010)의 분석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비록 두 차례의 경제위기로 노동시장에서는 열악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자산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림으로써 소비 수준 및 소비의 안정성 면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여타 세대에 비해 더 불리한 경험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 밖에 김희정·천혜정(2016)은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 그리고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다시 출생 붐을 일으켜 태어난 에코세대(1979~1992년생) 간의 일 가치관, 여가태도, 은퇴준비 행동을 비교분석하였다. 박태정(2013)은 생애사적 관점에서 심층면담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과정에 드러난 일과 은퇴에 관한 당사자의 경험을 풀어내고 있으며 함창모·남윤명(2018)은 충북지역의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0년에 47~55세를 맞이했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은퇴 및 이러한 사건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로는 정호성 외(2010), 방하남 외(2010), 윤석명 외(2011), 임기홍·백성준(2014), 최은영(2015), 윤영중·박환용(2019), 박숙정·이영민(2021) 등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퇴장과 지속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전통적) 은퇴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점진적 은퇴) 개념에 대한 적절한 구분이 필요하다.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는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활동을 종료하거나 생계에 대한 부담이 없이 소일거리 정도의 일만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라고 할 때는 보통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즉, 생애 일자리 경력의 정점인 45세 나이를 포함하여 10년 이상의 근속 기간을 거치다가 이후에 기업에서 정년을 맞이하거나 자발적인 이직 등의 점진적 은퇴로 이해할 수 있다(장지연, 2003). 기업의 법적 정년은 2010년에 55세를 기준으로 이후 꾸준히 늘어 현재는 60세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다수의 중고령자는 이러한 일반적인 정년 이전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은 72.3세(2018년)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공식 은퇴 연령(62세)과의 차이는 10.3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혜, 2022). 이러한 오랜 기간의 노동시장 체류와는 달리 같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55~64세 연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2021년 기준 평균 49.3세로 비교적 일찍 퇴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기존 연구에서 은퇴와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또는 종료)’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또는 퇴직에 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정호성 외(2010)는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이 노동시장, 자산시장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은 향후 10년간 분산됨에 따라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인구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윤석명 외(2011)는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에 따라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양적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와 베이비붐 세

대의 시장 수요를 고려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최은영(2015)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준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준비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숙정·이영민(2021)은 고령화연구패널 1~7차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점을 분석한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은퇴시점이 빨랐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임금 만족도와 고용 안정성이 높을수록 은퇴 시점이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임기홍·백성준(2014) 및 윤영중·박환용(2019)은 설문 조사에 기초하여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주거 선택과 이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한국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주거 이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서 중고령자의 은퇴시점 결정요인이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재취업을 분석한 연구로는 방하남 외(2010), 조동훈(2014), 이주영(2020), 안준홍·이태(2022) 등의 연구가 있다. 우선 방하남 외(2010)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 및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근속, 퇴직 및 재취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서 생애 주된 직장은 일생 동안 경험하였던 직장들 중 근속기간이 가장 길며 그 지속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직장(혹은 일자리)으로 식별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1960년생의 경우 생애 주된 직장에서 45세 직장 생존율이 20%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52년생이 45세가 되었을 때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으며 이후 생애 주된 직장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현상과 연결된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45세 이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률(근속기간) 및 재취업 확률 및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적 및 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동훈(2014)은 한국노동패널의 60세 이상 고령자층을 대상으로 은퇴시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력, 임금근로여부, 산업과 직종 그리고 정년제 시행 여부라고 분석하였다. 이주영(2020)의 연구는 방하남 외(2020)의 분석 결과와 연결된다. 즉, 한국노동패널의 중고령자 대상 생존분석을 통해 1997년 외환위기는 중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렸으며, 외환위기 이후 퇴직 속도가 빨라졌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준홍·이태(2022)는 점진적 은퇴 그룹에 대한 분석 결과, 비자발적 조기퇴직을 한 그룹이 자발적 조기퇴직을 한 그룹에 비해 점진적 은퇴와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동안 표본 집단 설문조사에 기초한 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파악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실제 퇴직 시점, 그리고 해당 퇴직 시점의

소득 활동과 이후 재취업 업종 및 일자리 이동 등에 관한 실증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특히 전북지역의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근속과 퇴직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특정 출생연도의 베이비붐 세대 전수를 이용한 분석이라는 점에서도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III. 전북지역의 베이비붐 세대 : 인구 비중 및 패널 자료 검토

2023년 6월 기준 전북지역의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9만 2천 명으로 전북지역 전체 인구의 10.9%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생으로 2023년 기준 68~77세로 도출하였다. 이는 전국 인구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8.7%의 비중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지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비해서 전북지역을 포함하여 지방의 경우 고령화 인구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전국, 전북 및 경기 지역의 베이비붐 세대 인구¹⁾

(단위 : 천명, %)

		전체 인구	베이비붐 세대 (68~77세)	구성비
전국	합계	51,392.7	4,496.8	8.7
	남자	25,607.2	2,103.8	8.2
	여자	25,785.5	2,393.0	9.3
전북	합계	1,762.0 (3.4)	191.7 (4.3)	10.9
	남자	877.0 (3.4)	90.1 (4.3)	10.3
	여자	885.0 (3.4)	101.6 (4.2)	11.5
	합계	13,619.0 (26.5)	970.2 (21.6)	7.1
경기	남자	6,853.0 (26.8)	457.6 (21.8)	6.7
	여자	6,766.0 (26.2)	512.5 (21.4)	7.6

주 : 1) ()내는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 2023년 6월 기준 통계청 (행정구역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현황

한편 이러한 지방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현재 생존해 있는 전국 베이비붐 세대 인국 약 450만 명에서 전북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나타났다

다. 전국 인구에서 전북지역 전체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 3.4%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하여 경기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6.5%,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년마다 조사하여 구축하는 고령화연구패널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기준 전북지역의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우선 전북지역의 1955~1963년생 기준으로는 표본 수가 60개 정도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전북지역의 인구 비중이 가중 처리되어 표본 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특정 연령대만 추출했기 때문이다. 또한 1962~1963년생의 경우는 최근 전북지역의 인구 동향을 감안해서인지 표본에서도 추출되지 않았다.

<표 2> 고령화연구패널 8차 자료(2020년 조사) 기준 전북지역의 베이비붐 세대 특징

출생연도	관측치 수	현재 생활상태	현 일자리 고용형태	지난해 개인 총소득
1955 (2020년 65세)	11	- 취업자 6 - 비경활 5	- 임금 근로자 4 - 주 18시간미만 2 - 자영업자 2	1937만 원
1956 (2020년 64세)	8	- 취업자 5 - 비경활 3	- 임금 근로자 2 - 주 18시간미만 1 - 자영업자 2	1628만 원
1957 (2020년 63세)	10	- 취업자 2 - 비경활 8	- 임금 근로자 1 - 주 18시간 미만 0 - 자영업자 1	1337만 원
1958 (2020년 62세)	8	- 취업자 4 - 비경활 4	- 임금 근로자 1 - 주 18시간 미만 1 - 자영업자 2	1975만 원
1959 (2020년 61세)	8	- 취업자 8 - 비경활 0	- 임금 근로자 6 - 주 18시간 미만 2 - 자영업자 2	2753만 원
1960 (2020년 60세)	9	- 취업자 5 - 비경활 4	- 임금 근로자 2 - 주 18시간 미만 2 - 자영업자 0	1337만 원
1961 (2020년 59세)	6	- 취업자 6 - 비경활 0	- 임금 근로자 3 - 주 18시간 미만 1 - 자영업자 2	2269만 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8차(2020년 조사) 라이트 버전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는 여전히 절반 이상은 취업자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고용 형태는 임금 근로자와 함께 자영업자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적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이유는 열악한 소득 기반에 따른 경제적 이유가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출생연도별 임금 근로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에 따라 2019년 기준

개인 총소득에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연 기준 총소득은 2300백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표본 8명 모두가 취업자로 잡힌 1959년생의 경우 2753만원으로 베이비붐 세대 중 총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실증분석

본 장은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북지역 1958~1963년 베이비붐 세대 전수에 대해 노동시장의 퇴장과 지속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본 장의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이 7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우선 국민연금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포함하였다. 둘째,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시점과 당시의 소득을 추정한다. 셋째, 출생연도별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후 일자리 이동에 대해서 분석한다. 넷째, 상기의 일자리 종료, 소득, 일자리 이동이 산업별로 가지는 특징을 분석한다. 다섯째,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까지의 탐색 기간과 근속기간의 특징을 분석한다. 여섯째, 경기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시점과 당시의 소득, 이후의 일자리 이동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및 경기지역 직장인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50세때 직장에서 계속노동을 하는 요인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을 수행한다.

4.1 국민연금 빅데이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되었다. 이후 가입 대상 사업장이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오다가 2006년 1월에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가입대상이 확대가 완료되었다. 2008년에는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가입자에게 연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포괄범위를 살펴보면, 2019년말 기준이며 18~59세 총인구 3,213만 명에서 경제활동인구가 2,317만 명이며 여기서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 170만 명을 제외한 2,172만 명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 이중에서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국민연금 납부자는 1,738만 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크게 나누어진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임의가입자가 포함될 수 있으나 대다수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영업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십 년에 걸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별 국민연금 납부 내역과 이에 연관된 개인 및 사업장 정보가 누적되어 있는 것이 국민연금 빅데이터이다. 국

민연금 제도의 특성상 해당 자료에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개인의 소득 정보와 사업장의 규모, 주소, 업종 등의 관련 정보가 풍부히 존재한다. 우선 <표 3>에는 명목 소득의 상승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상승 추이 변동이 정리되어 있다. 해당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의 증가율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조정하여 이후 1년간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한액과 하한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제 소득으로 국민연금 빅데이터에 기록된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 정보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비교할 때 상한액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누락될 수 있어서 일정한 하향 편의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3> 2020년 이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¹⁾

(단위 : 원)

상한액	하한액	적용 기간
3,600,000	220,000	2009. 7 ~ 2010. 6
3,680,000	230,000	2010. 7 ~ 2011. 6
3,750,000	230,000	2011. 7 ~ 2012. 6
3,890,000	240,000	2012. 7 ~ 2013. 6
3,980,000	250,000	2013. 7 ~ 2014. 6
4,080,000	260,000	2014. 7 ~ 2015. 6
4,210,000	270,000	2015. 7 ~ 2016. 6
4,340,000	280,000	2016. 7 ~ 2017. 6
4,490,000	290,000	2017. 7 ~ 2018. 6
4,680,000	300,000	2018. 7 ~ 2019. 6
4,860,000	310,000	2019. 7 ~ 2020. 6
5,030,000	320,000	2020. 7 ~ 2021. 6
5,240,000	330,000	2021. 7 ~ 2022. 6
5,530,000	350,000	2022. 7 ~ 2023. 6

자료 : 국민연금 보도자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문)

본 연구에서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현재 빅데이터에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월별로 전국의 1958~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관련 자료를 모두 구축하였다. 이후에 전북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한편 필요한 경우 경기지역의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2010년 기준 1963년생은 만 46~47세가 되며 이후 국민연금 기록이 추정 가능한 만 59~60세까지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남아있게 된다. 이는 1962년생의 경우 만 47~48세가 되며 순차적으로 1961년생은 2010년 기준으로 만 48~49세가 되는 구조이다. 즉, 베이비붐 세대의 50세 전

후 시기의 소득 및 직장 이동 등의 시기에 집중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와 자영업자 지위로 식별한 통계를 계속 적용한다. 이후 직장 가입자에서 자영업자 창업이나 다른 직장으로 이동은 모두 퇴직(또는 창업)으로 묶이게 되며, 2010년 기준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도 이후에 다시 직장 가입자와 재창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두 동일하게 일자리 이동으로 식별된다. 즉, 직장 종사자에서 자영업자 이동 및 반대의 일자리 이동 분석에 대한 통계는 본 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본 자료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4.2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시점 및 소득 추정

4.2.1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시점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시점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46세 이후 국민연금 자료 기준 최초의 국민연금 지위 상실 시점으로 식별하였다. 즉,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상실 시 퇴사로 간주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46세 이후 자료에서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도 이후에 변동이 생기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지역 가입자는 자영업자와 임의가입자 등 직장 가입자가 아닌 나머지 모두를 포함하나 대체로 자영업자로 판단된다.

우선 <표 4>에는 전북지역의 1958~1963년생의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의 분류에 따른 전체 관측치 수가 정리되어 있다. <표 4>를 살펴보면, 1963년생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17,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0년 당시에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지위를 유지했던 4,987명의 만 46세 이후 최초 퇴직 시점은 평균 50.4세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에는 2010년 이전에 생애 주요 직장에서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후에 다시 퇴사한 사례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북지역 직장인의 생애 주요 직장에서 퇴사하는 시기는 50.4세보다도 좀 더 빠를 가능성은 있다.

<표 4>에는 1963년생과 함께 1962~1958년생 등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직장 가입자와 자영업자의 2010년 이후 최초 퇴직 시점 평균이 나타나 있다. 또한, () 내는 2010년 기준 직장 또는 자영업자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이후의 기간에 최초 일자리 종료까지 해당 일자리 유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58년생의 경우 2010년 기준 만 52세로서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평균 3.7년을 해당 직장에서

종사한 후 퇴직을 하게 된다. 자영업자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 4.8년을 더 종사한 후에 해당 사업의 폐업을 경험하게 된다.

<표 4> 국민연금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1958~1963년생) 통계 및 50세 전후 최초 퇴직 시점

출생연도	관측치 수 ¹⁾	설명	2010년 이후 최초 퇴직 시점 ²⁾	연령조정 최초 퇴직 시점 ³⁾
1963년생	17,751	2023년 8월 기준 국민연금 DB에 있는 관측치		
	4,897	2010년 기준 (만 47세) 직장 가입자	50.4(3.4)	50.4
	6,254	2010년 기준 (만 47세) 지역 가입자(자영업자)	52.1(5.1)	52.1
1962년생	22,043	2023년 8월 기준 국민연금 DB에 있는 관측치		
	6,990	2010년 기준 (만 48세) 직장 가입자	53.7(5.7)	52.7
	8,054	2010년 기준 (만 48세) 지역 가입자(자영업자)	54.1(6.1)	53.1
1961년생	22,302	2023년 8월 기준 국민연금 DB에 있는 관측치		
	6,836	2010년 기준 (만 49세) 직장 가입자	54.2(5.2)	52.2
	8,327	2010년 기준 (만 49세) 지역 가입자(자영업자)	54.8(5.8)	52.8
1960년생	23,739	2023년 8월 기준 국민연금 DB에 있는 관측치		
	7,154	2010년 기준 (만 50세) 직장 가입자	54.7(4.7)	51.7
	9,357	2010년 기준 (만 50세) 지역 가입자(자영업자)	55.8(5.8)	52.8
1959년생	20,094	2023년 8월 기준 국민연금 DB에 있는 관측치		
	6,052	2010년 기준 (만 51세) 직장 가입자	55.2(4.2)	51.2
	8,023	2010년 기준 (만 51세) 지역 가입자(자영업자)	56.3(5.3)	52.3
1958년생	16,811	2023년 8월 기준 국민연금 DB에 있는 관측치		
	5,087	2010년 기준 (만 52세) 직장 가입자	55.7(3.7)	50.7
	6,706	2010년 기준 (만 52세) 지역 가입자(자영업자)	56.8(4.8)	51.8

주 : 1) 전체 관측치에서 직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를 제외하고 남은 관측치는 2010년 이후에 새롭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개인을 의미

2) ()내는 2010년 기준 직장 또는 자영업자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이후 최초 퇴직 시점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

3) 1963년생 대비 2010년 기준 나이가 한 살씩 더해지는 구조여서 출생연도가 낮아짐에 따라 나이를 순차적으로 차감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2010년 기준 종사상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이후의 근로 기간은 1962년생부터 이전의 세대까지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1958년생은 2010년 기준 3.7년을 더 동일한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이후 1962년생은 5.7년까지 동일한 사업장에 종사하게 된다. 2010년 기준 직장이든 자영업자든 종사상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 기간이 점차 길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1963년생에 와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전북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2010년 기준 만 46~47세로 직장 가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1962년생과 비교하여 동일한 사업장 종사 기간이 5.7년에서 3.4년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영업자 지위의 지역 가입자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직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59세로 60세에 보통 정년퇴직하는 다수의 직장인 퇴직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

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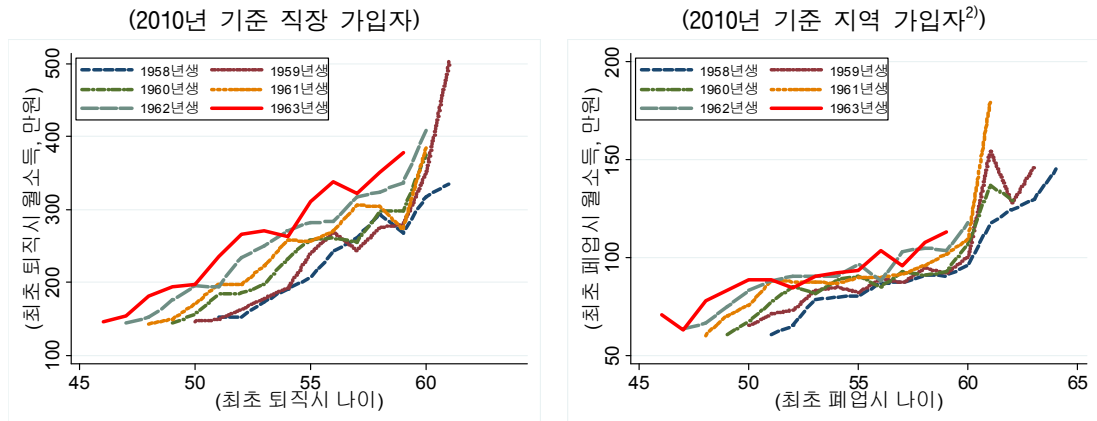
<표 4>의 연령조정 퇴직 시점 통계는 2010년 기준 1963년생과 비교하여 1962~1958년생은 순차적으로 한 살씩 더 나이가 있기에 이를 연령대별로 한 살씩 더하는 단순 조정을 수행하고 1963년생의 46~47세 이후 최초 퇴직 시점과 비교해 본 것이다. 해당 통계의 경우도 1958년생의 50.7세에서 1962년생의 52.7세로 최초 퇴직 시점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직장 가입자의 경우 매년 0.5년씩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연령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63년생에서는 60세 정년퇴직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와 비교하면 덜 두드러지지만 유사한 추세가 나타났다.

4.2.2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시점의 소득 추정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시점에서의 출생 연령별 월 소득을 살펴보았다. <그림 1>의 왼쪽 패널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인 1963년생의 경우 46세에 생애 주요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해당 퇴직 급여가 100만원 중반대로 나타났다. 이후 생애 주된 직장에서 보다 오래 머무르는 등 점차 퇴직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퇴직시 소득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59세에 최초로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월 400만 원에 육박하는 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58~62년생 베이비붐 세대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서 논의했듯이 자료 구축의 시간 제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2010년이라는 시점 이후로 자료를 구축하다 보니 1962년생 이전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연령은 순차적으로 1년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 효과를 조정한다면 대략 51세 전후로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일찍 퇴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때문일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40대에 중반 이전에 퇴사하고 직장 이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60세까지 납부하고 있으며 이후에 지역 및 임의 가입자로 전환한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59년생의 경우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퇴직을 하게 되면서 소득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¹⁾ 시 소득 추이



주 : 1)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연령대별 최초 퇴직 또는 폐업 시점으로 식별
 2) 자영업자 및 임의 가입자 등이 포함되나 대다수는 자영업자로 판단됨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그림 1>의 오른쪽 패널은 2010년 기준 지역 가입자의 일자리 종료 시 연령대별 소득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자영업자인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해당 소득 수준이 직장 가입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가입자에서 보이는 퇴직 연령이 상승하면서 단조 비례하여 상승하는 소득 추이도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기준 지역 가입자 지위를 유지하다가 일자리를 종료하는 것은 폐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50대 이후 재창업을 하더라도 영업성과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종료 후 일부가 지역 가입자로 들어오면서 퇴직 소득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소득 상승은 자영업자의 실제 영업활동 능력과는 다소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 연령대별 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2>의 상위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58~63세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 직장 가입자의 경우, 46세 이후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 1년 이연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경우 일 년에 평균 19.6만 원씩 퇴직 명목 소득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 중 가장 젊으며 2023년 기준 아직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1963년생의 경우 46세 퇴직과 59세 퇴직자 간의 퇴직 시점 평균 급여 차이는 해당 13년간에 걸쳐 평균 232.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직장 종사자의 퇴직 시점 대비 큰 소득 격차는 자영업자 위주의 지역 가입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58~63세 자영업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의 1년 이연에 따른 평균 소득 격차는 3.9만 원으로 직장 종사자의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림 2>의 오른쪽 상위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퇴직 또는 폐업 나이가 늦어질수록

직장 종사자와 자영업자 간의 소득 격차도 직장 종사자의 퇴직 소득 상승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시점에 따른 소득 격차는 실질 기준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2005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설정하고 이후 연도별 물가지수의 상승분으로 연도별 명목 소득을 나누어준 실질 소득을 구축하고 해당 변수의 격차를 살펴본 결과, <그림 2>의 아래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 가입자의 1년 퇴직 이연에 따른 실질 소득이 평균 12만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도 명목 기준에 절반 정도의 평균 실질 소득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시점 이연에 따른 소득 격차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¹⁾ 또는 폐업 시 소득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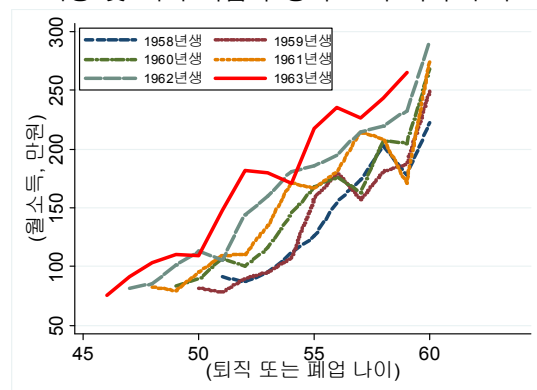
(출생연도별 명목 소득 격차)

출생연도	1년 단위 평균 명목 소득 격차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²⁾
58년생	18.5만 원	3.9만 원
59년생	20.3만 원	3.5만 원
60년생	21.0만 원	4.2만 원
61년생	20.1만 원	4.1만 원
62년생	20.2만 원	4.2만 원
63년생	17.9만 원	3.2만 원
58-63년생 평균	19.6만 원	3.9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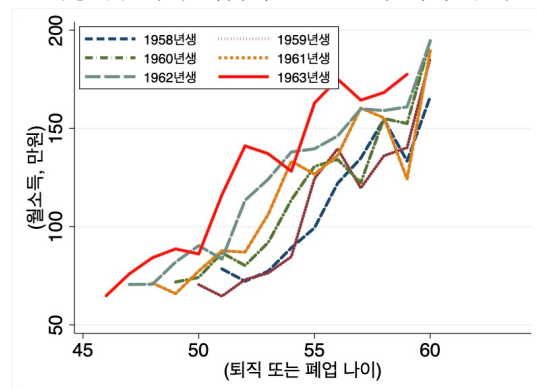
(출생연도별 실질 소득 격차)

출생연도	1년 단위 평균 실질 소득 격차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²⁾
58년생	11.9만 원	2.2만 원
59년생	13.4만 원	1.9만 원
60년생	13.5만 원	2.3만 원
61년생	11.8만 원	2.0만 원
62년생	11.4만 원	1.9만 원
63년생	9.8만 원	1.1만 원
58-63년생 평균	12.0만 원	1.9만 원

(직장 및 지역 가입자 명목 소득 격차 추이)



(직장 및 지역 가입자 실질 소득 격차 추이)



주 : 1)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연령대별 최초 퇴직 또는 폐업 시점으로 식별

2) 2010년 기준 자영업자 및 임의 가입자 등이 포함되나 대다수는 자영업자로 판단됨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한편 58~63년생의 퇴직 시점 소득 차이를 유사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베이비붐 세대 자료의 관측이 동일한 기간에 대해 가능한 퇴직 연령 59~61세로 맞추어 직장 가

입자의 소득 차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1958~1963년생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59세 퇴직한 직장 종사자는 51세에 퇴직한 직장 종사자 대비 해당 6년간 평균 120.0만 원 명목 소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의 오른쪽 상위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베이비붐 세대 직장 종사자의 이러한 퇴직 시점별 소득 격차는 베이비붐 세대 출생 나이별로 매우 유사한 상승 패턴을 보였다. 한편 실질 기준으로 하위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120만원의 소득 격차 중 50만원의 물가 상승효과를 제외한 70만원의 실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59세 - 51세 퇴직¹⁾ 시 소득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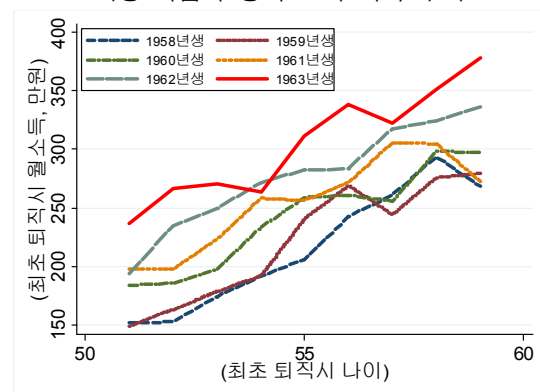
(출생연도별 명목 소득 격차)

출생연도	59세 - 51세 소득 격차
58년생	116.4만 원
59년생	130.2만 원
60년생	113.7만 원
61년생	75.2만 원
62년생	142.7만 원
63년생	141.6만 원
58~63년생 평균	12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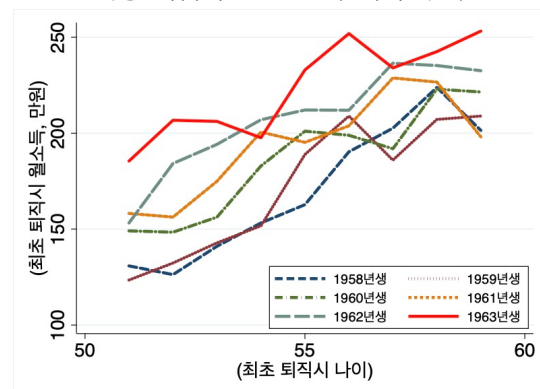
(출생연도별 실질 소득 격차)

출생연도	59세 - 51세 소득 격차
58년생	76.6만 원
59년생	85.5만 원
60년생	72.4만 원
61년생	39.9만 원
62년생	79.4만 원
63년생	67.7만 원
58~63년생 평균	70.3만 원

(직장 가입자 명목 소득 격차 추이)



(직장 가입자 실질 소득 격차 추이)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연령대별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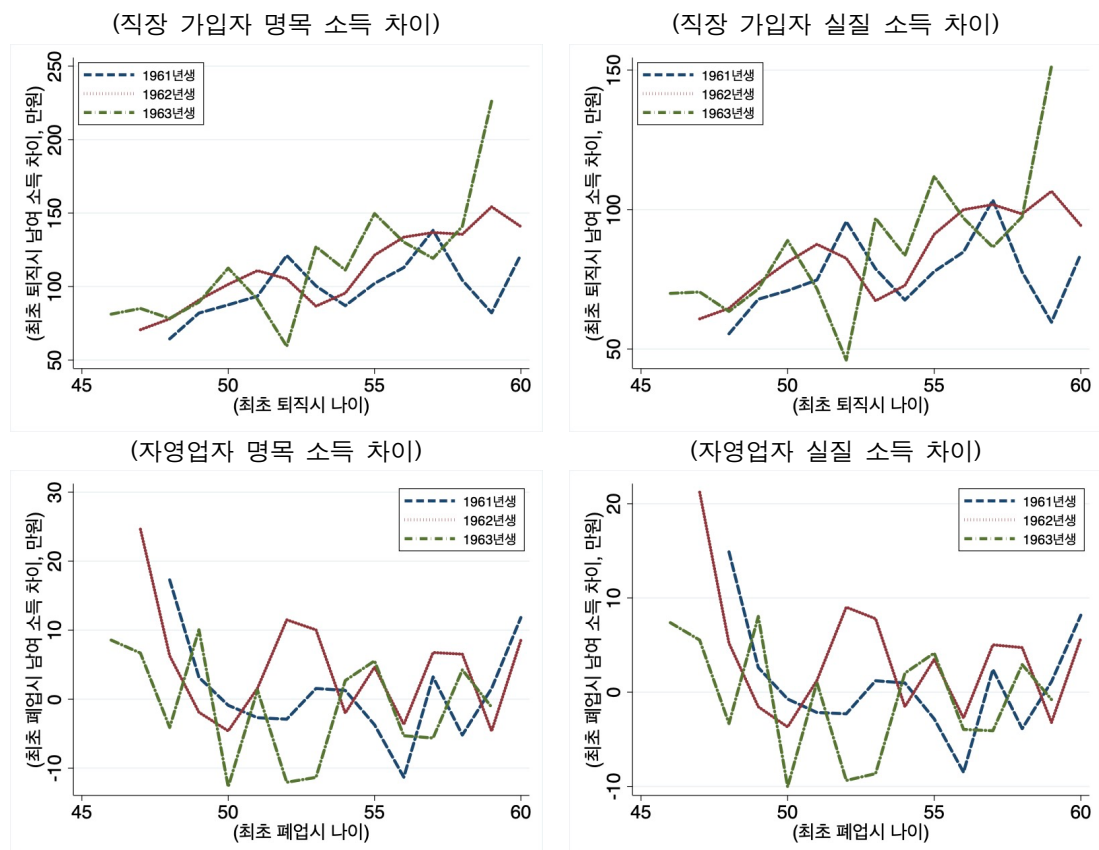
4.2.3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시점의 성별 소득 차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섹션에서는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노동을 종료하는 시점에 따라서 남녀 간에 퇴직 소득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1961~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 살펴본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직장 가입자의 경우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하는 나이가 높아질수록 남녀 간의 소득 격차도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 시점으로 설정한 실질 소득 기준으로 48세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하는 경우 남녀 간의 소득 차이는 73.6만 원이나 이후 59세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131.3만 원으로 남녀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에 따라 1961~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남녀 간 소득 차이는 108.8만 원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자영업자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남녀 간에 임금 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소득 기준으로 1961~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차이는 평균 1.3만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소득은 남녀 모두 직장 가입자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¹⁾ 시 남녀 간 소득 차이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연령대별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4.3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후 일자리 이동 분석

전북지역을 베이비붐 세대는 50세 전후에 주요 일자의 종료를 경험하고 이후 직장탐색과 재취업 그리고 퇴직 및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를 이동을 경험하게 된다. 본 섹션은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 물러난 후 재취업 및 창업 등으로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다시 퇴직 및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종료하고 시작하는 일자리 이동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0년 이후 일자리 퇴직 및 폐업 그리고 다시 재취업 및 창업 등 2023년까지 20차례 이내의 일자리 이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10번의 퇴직과 이후 10번의 재취업을 경험했다면 본 섹션의 분석에 포함된다. 그러나 21번을 넘어서는 일자리 이동은 그 경우가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3.1 일자리 종료 횟수 기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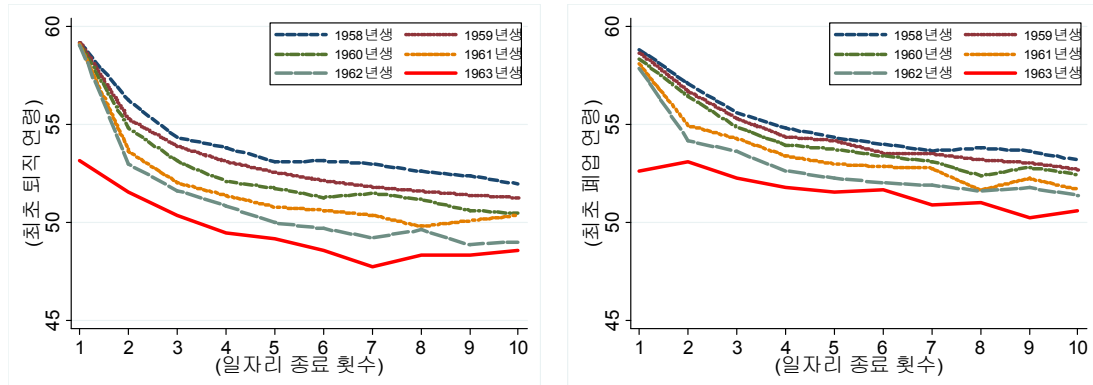
<그림 5>는 1958~1963년생의 생애 주요 일자리 종료 나이와 함께 생애 주요 일자리 종료 후 다시 노동 활동을 하다 퇴직하거나 폐업한 횟수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우선 <그림 5>의 왼쪽 패널을 보면, 2023년 기준 만 60세를 넘긴 1958~1962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자료에서 한 번의 일자리 종료만 관측되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거의 60세에 수렴하고 있다. 다만 1963년생의 경우 아직 만 나이로 60세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한 번의 일자리 퇴직을 경험한 경우에도 60세에 근접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 연령대별로 일자리 종료 횟수가 늘어날수록 생애 주요 일자리에 물러나는 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변수 간의 반비례 관계는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애 주요 일자리에 50세 전후의 나이로 비교적 일찍 물러나는 경우 거의 10번에 가까운 퇴직 또는 폐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1~2번 정도의 일자리 종료를 경험하는 경우는 생애 주요 일자리 종료 나이가 50세 중후반대에서 형성된다.

<그림 5>의 오른쪽 패널에는 2010년 기준 지역 가입자의 일자리 종료 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생애 주요 일자리 종료 나이와 이후 일자리 종료 횟수 간의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2010년 기준 직장 종사자보다는 그 정도가 다소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63년생 기준으로 50세 전후에 최초 폐업을 경험한 경우 이후 다수의 일자리 이동을 경험하게 되고, 50세 초중반 이후 최초 폐업을 경험한 경우에는 일자리 이동 경험 횟수가 줄어든다. 다만 이러한 생애 주요 일자리 종료 연령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¹⁾ 연령과 퇴직(또는 폐업) 횟수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2010년 기준 지역 가입자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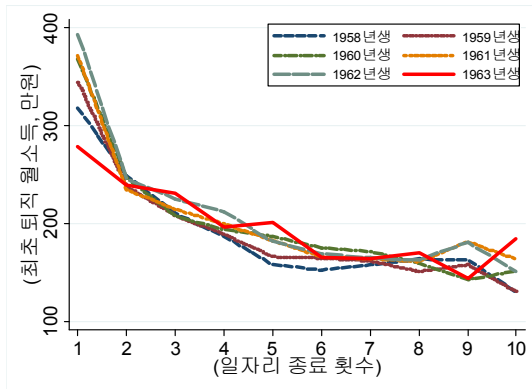
주 : 1)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연령대별 최초 퇴직 또는 폐업 시점으로 식별
2) 자영업자 및 임의 가입자 등이 포함되나 대다수는 자영업자로 판단됨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그림 6>은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요 일자리 종료 시 소득과 이후의 추가적인 일자리 종료 횟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왼쪽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일자리 종료 횟수가 5회가 될 때까지는 일자리 종료 횟수가 늘어날수록 비교적 가파르게 생애 주요 직장에서의 퇴직 시 소득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일자리 종료 횟수가 5회를 넘어가면 해당 횟수 증가와 생애 주요 일자리 소득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50세 전후로 낮은 소득 수준 등으로 최초 퇴직을 하는 경우, 다수의 일자리 이동을 하게 되며, 특히 5회 이상의 이동을 하는 경우 재취업이든 창업이든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평균 2년 미만의 짧은 노동 근속기간을 의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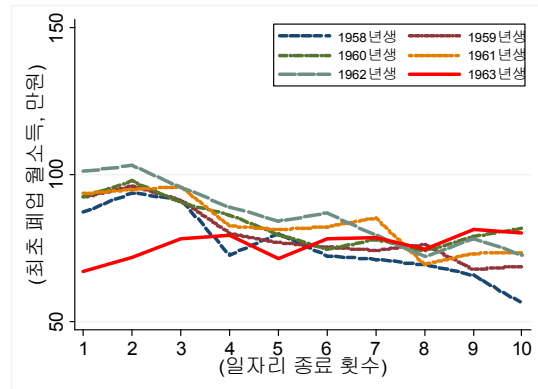
<그림 6>의 오른쪽 패널은 2010년 기준 지역 가입자의 최초 폐업 시 소득과 일자리 종료 횟수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왼쪽 패널의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와 비교하면 일자리 종료 횟수와 최초 폐업 시 소득 간의 반비례 관계가 크지는 않다. 이는 자영업자로 판단되는 대다수 해당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아서 해당 격차가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최초 폐업 시 소득이 낮은 경우 이후 비례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 종료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반비례 추세는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6>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¹⁾ 시 소득과 퇴직(또는 폐업) 횟수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2010년 기준 지역 가입자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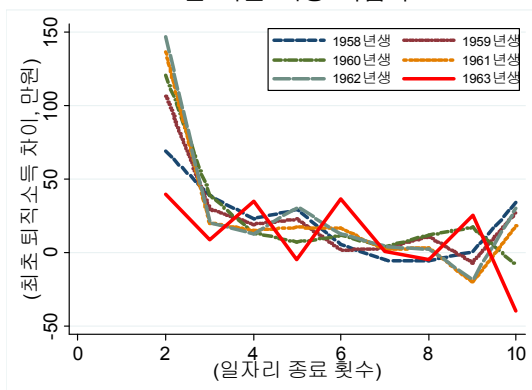


주 : 1)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연령대별 최초 퇴직 또는 폐업 시점으로 식별
2) 자영업자 및 임의 가입자 등이 포함되나 대다수는 자영업자로 판단됨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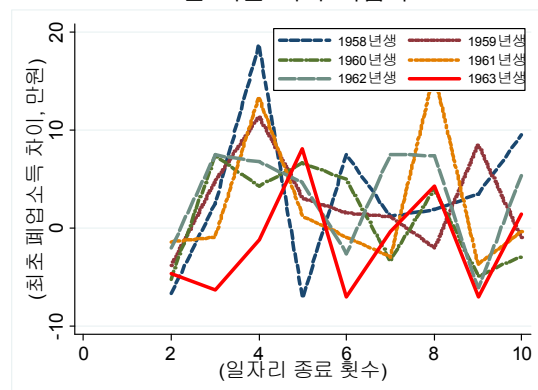
<그림 7>은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종료 횟수와 생애 주요 일자리 종료 시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왼쪽 패널은 일자리 종료 횟수가 1회에서 2회 증가함에 따라 소득 격차가 가장 크고 이후 종료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 격차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하락 폭은 앞서 <그림 6>에서 살펴보았듯이 5회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거의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쪽 패널은 2010년 기준 지역 가입자의 해당 소득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자리 종료 횟수의 단조 증가에 따른 최초 폐업 소득 간에 한 해의 변동 양상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¹⁾ 시 소득 격차와 퇴직(또는 폐업) 횟수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2010년 기준 지역 가입자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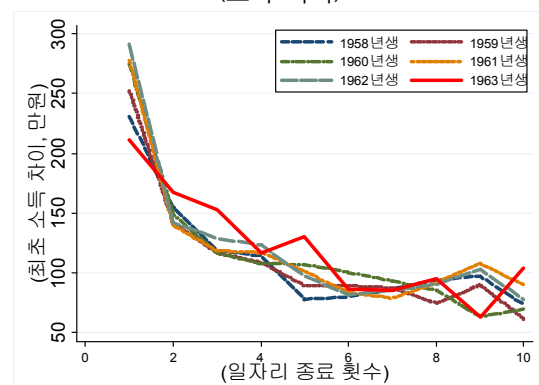


주 : 1)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연령대별 최초 퇴직 또는 폐업 시점으로 식별
2) 자영업자 및 임의 가입자 등이 포함되나 대다수는 자영업자로 판단됨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그림 8>은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요 일자리 종료 시 직장 퇴직자와 자영업자 간의 소득 차이를 출생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1958~1963년생 평균으로는 117.5만원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직장 퇴직자의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른쪽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 퇴직자의 소득이 일자리 종료 횟수에 따라서 단조 하락한 반면, 자영업자 소득의 경우 일자리 횟수에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두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종사자 간의 퇴직 소득 차이는 대체로 직장 종사자의 소득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자리 종료 횟수에 상응하는 연도 자료를 동시에 관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소득 차이는 모두 명목 소득 기준이다.

<그림 8>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¹⁾ 시 종사자 간 소득 차이 : 일자리 종료 기준
(출생연도별 소득 차이) (소득 차이)

출생연도	1회 - 10회 일자리 종료 횟수 간의 소득 차이
58년생	112.9만 원
59년생	111.1만 원
60년생	116.8만 원
61년생	120.7만 원
62년생	122.2만 원
63년생	121.3만 원
58~63년생 평균	117.5만 원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연령대별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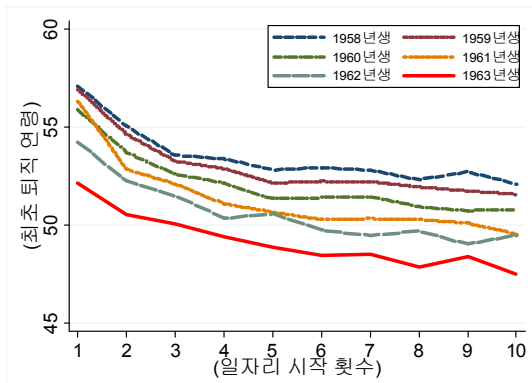
4.3.2 일자리 시작 횟수 기준 분석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이후의 재취업 및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 시작 횟수 기준으로도 소득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9>는 2010년 이후 최대 10회까지 재취업 또는 창업한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앞의 섹션과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왼쪽 및 오른쪽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일자리 종료 기준의 <그림 5>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의 경우 60세라는 퇴직 종료 시점의 제약을 받지 않음에 따라 2010년도 이후 자료의 절단에 따른 순차적인 연령별 효과가 1963년에서 1958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오른쪽 2010년 기준 지역 가입자의 경우 한 번 퇴직 했다가 이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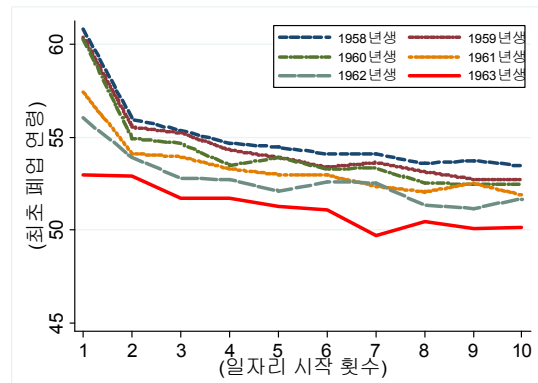
다시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사례가 x 축의 변수 1로 식별된다. 이에 따라 60세에 도달했을 때 다시 창업이 늘어나는 효과가 1958~1960년생에게서 발견된다.

<그림 9>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¹⁾ 연령과 재취업(또는 창업) 횟수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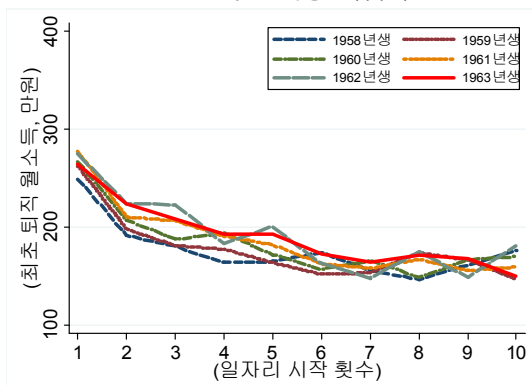
(2010년 기준 지역 가입자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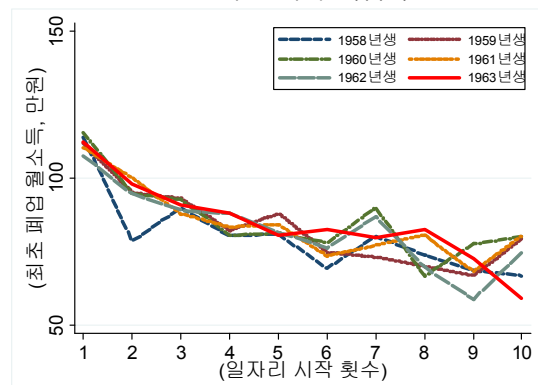
주 : 1)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연령대별 최초 퇴직 또는 폐업 시점으로 식별
2) 자영업자 및 임의 가입자 등이 포함되나 대다수는 자영업자로 판단됨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그림 10>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¹⁾ 시 소득과 재취업(또는 창업) 횟수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2010년 기준 지역 가입자²⁾)



주 : 1)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연령대별 최초 퇴직 또는 폐업 시점으로 식별
2) 자영업자 및 임의 가입자 등이 포함되나 대다수는 자영업자로 판단됨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그림 10>은 재취업 또는 창업 횟수 기준의 일자리 이동과 베이비붐 세대의 주된 일자리 종료 시의 소득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일자리 종료 기준의 <그림 6>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왼쪽 패널의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일자리 시작 횟수 1~4회에서 최초 퇴직 월 소득 간의 차이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10>에서 x축의 일자리 시작 횟수 변수 1은 이미

생애 주요 직장에서는 한번 퇴직하고 이후 재취업하거나 창업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림 6>에서 60세까지 한번 퇴직하는 것을 반영하는 일자리 종료 횟수 변수 1의 값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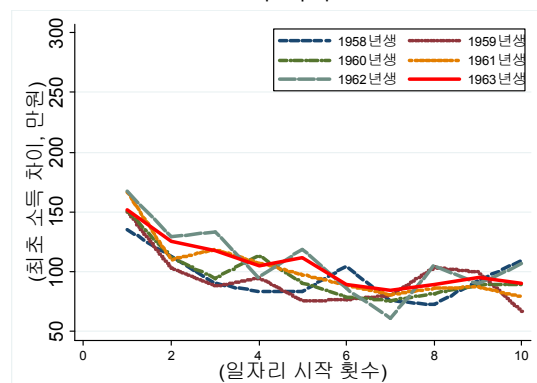
<그림 11>은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시의 종사자 간 소득 차이와 일자리 시작 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결과는 일자리 종료 기준의 <그림 8>과 유사한 패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직장 퇴직자의 경우 x축의 일자리 시작 1번 변수가 한번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2010년 기준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간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소득 간의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쪽 패널도 <그림 8>과 동일한 y 축 스케일로 그려보았는데, 역시 유사하게 해당 소득 차이가 줄어드는 가운데 일자리 시작 횟수와 반비례 형태를 보였다.

<그림 11>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¹⁾ 시 종사자 간 소득 차이 : 일자리 시작 기준

(출생연도별 소득 차이)

출생연도	1회 - 10회 일자리 시작 횟수 간의 소득 차이
58년생	95.7만 원
59년생	93.9만 원
60년생	97.7만 원
61년생	102.3만 원
62년생	109.3만 원
63년생	106.1만 원
58~63년생 평균	100.9만 원

(소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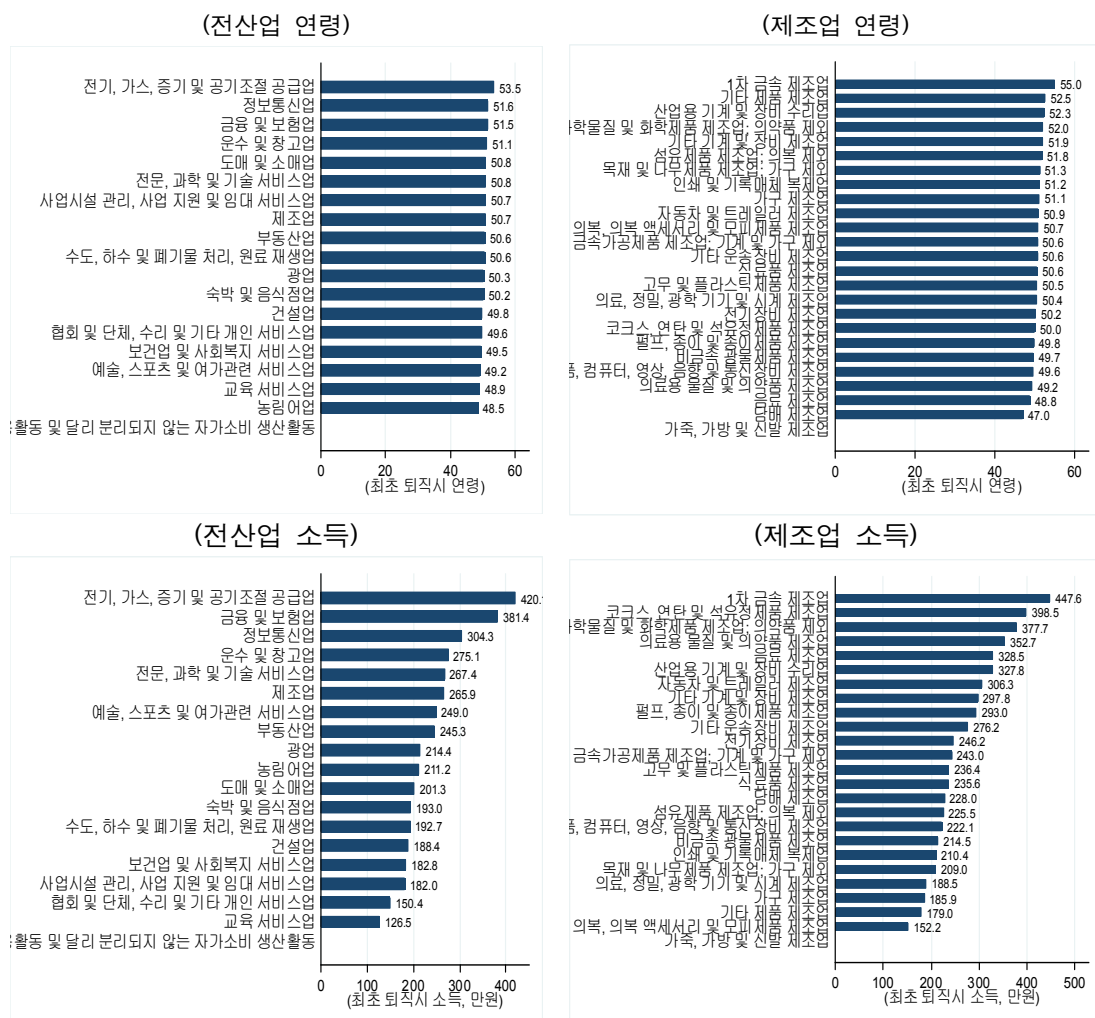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연령대별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4.4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직장 퇴직에 관한 산업별 분석

2010년 기준 직장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시점의 업종별로 퇴직 연령 및 퇴직 소득을 알아본다. 국민연금 빅데이터에서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업종 정보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직장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관련한 산업별 분석을 수행한다. 국민연금 빅데이터의 산업별 분류는 2017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표준산업분류표 10차 개정 기준에 따라 매우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본 섹션에서는 이 중에서 19개 산업의 대분류 기준과 함께 제조업의 경우는 산업 코드의 상위 두 자리 분류까지 살펴본다.

<그림 12>는 본 연구에서 가장 긴 생애가 포착된 1963년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시점의 산업별 연령 및 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의 상단 패널은 19개 전산업과 25개 제조업 하위분류별 생애 주된 직장 퇴직 연령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단 패널은 해당 산업별로 해당 퇴직 시점의 소득을 표시하고 있다. 우선 퇴직 나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 제조업 및 전문 서비스업 등의 퇴직 연령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여타 서비스업 및 농림어업의 경우 퇴직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1963년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 시 산업별 연령 및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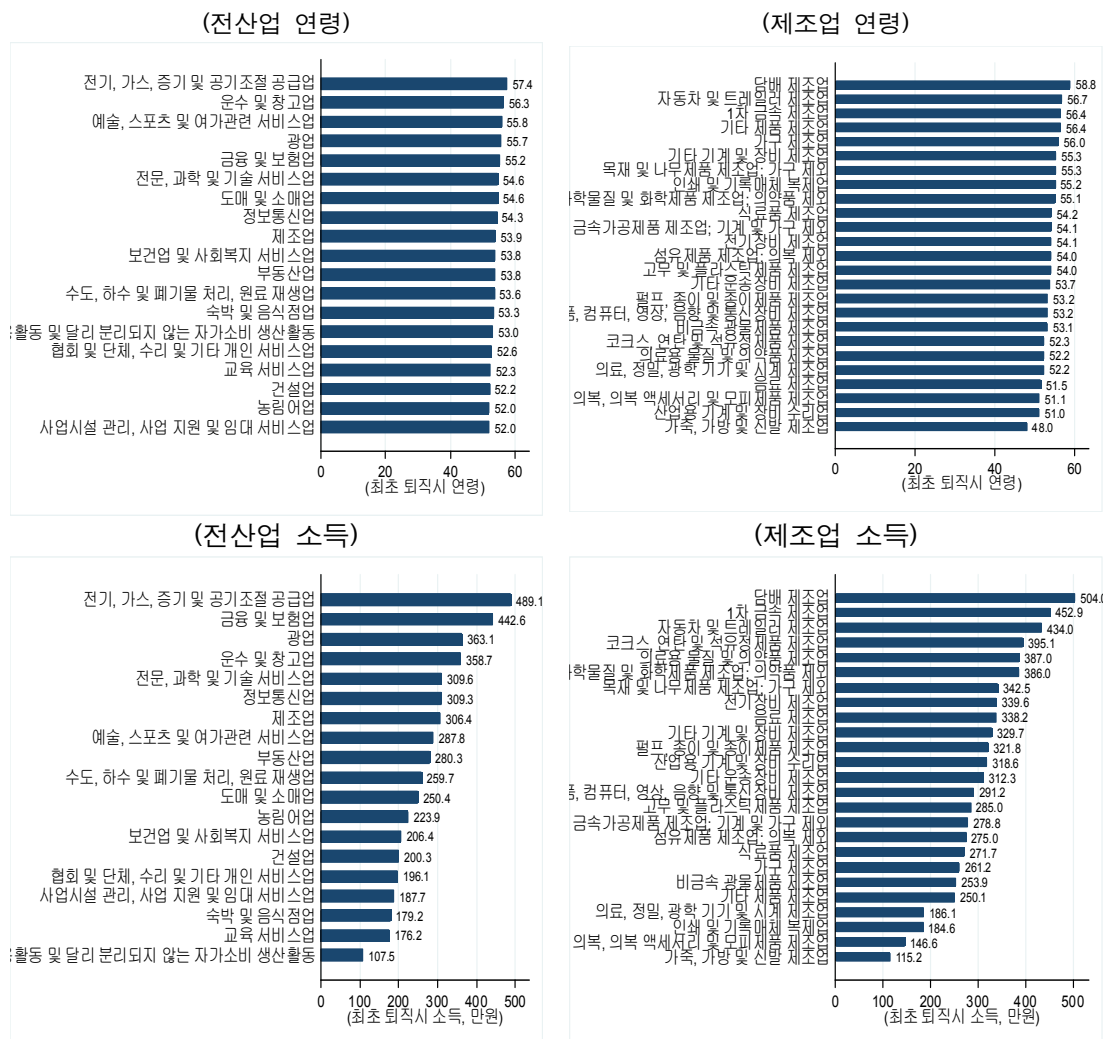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만 46세)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한편 전산업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제조업에 대해 25개 하위산업별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나이를 살펴보면,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금속 제조업의 경우 평균 55세 퇴직으로 독보적인 1위로 나타났으며, 석유 화학, 산업용 기계, 섬유제품 제조업 등에서 비교적 퇴직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담배 및 음료, 의약품 및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는 퇴직 나이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의 하단 패널을 보면 산업별로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할 때의 소득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퇴직이 늦은 산업에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퇴직이 빠른 산업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는 퇴직 나이는 많았으나 소득은 낮았으며,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는 반대로 퇴직이 빠름에도 퇴직 당시의 소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1962년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 시 산업별 연령 및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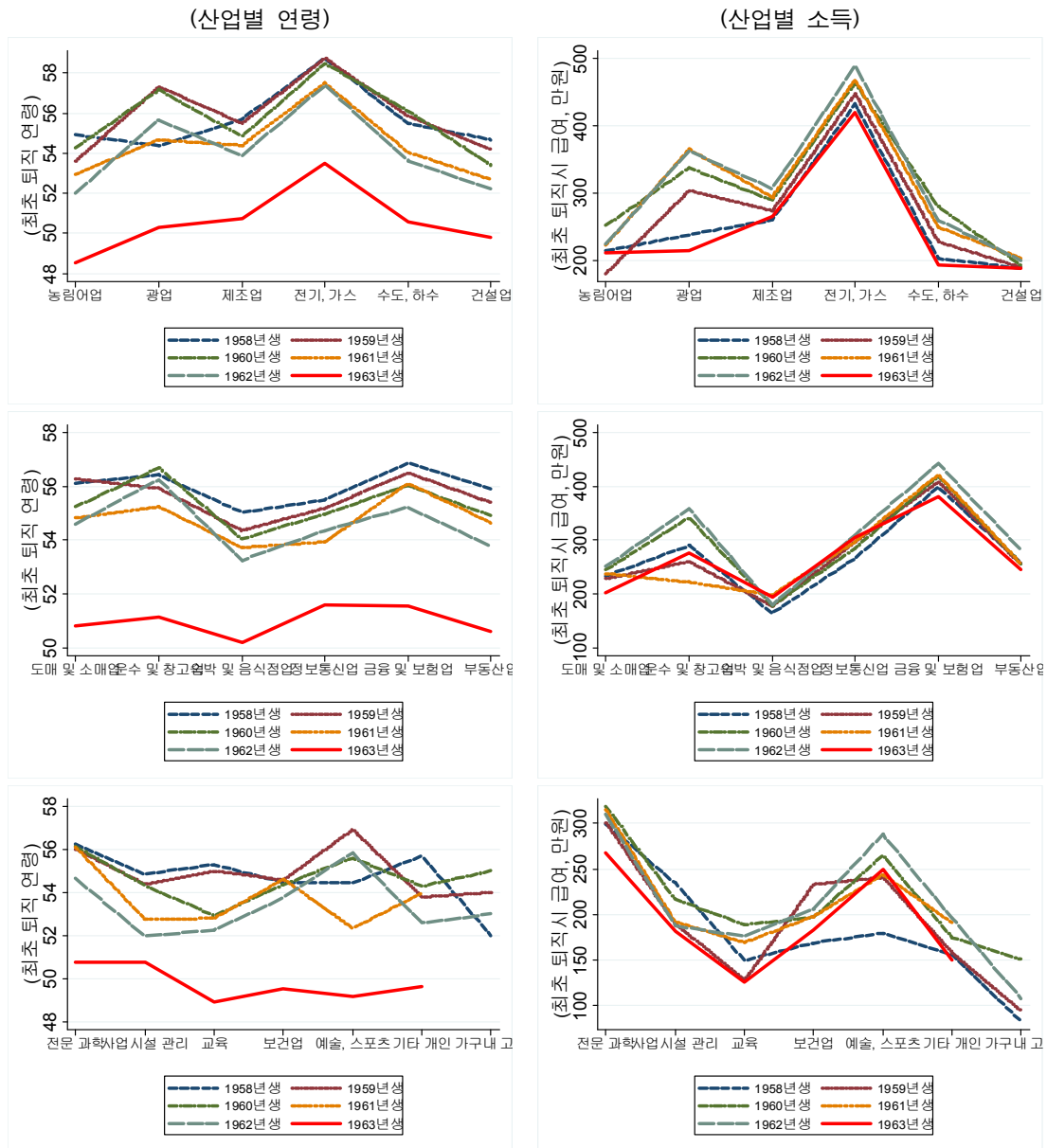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만 47세)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그림 13>은 산업별로 1962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연령과 그 시점의 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전산업 연령과 소득은 대체로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도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의약품, 화학제품 등의 제조업에서 퇴직 연령과 소득에서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일정한 패턴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제조업에서는 퇴직 연령과 소득에서 하위 업종별로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담배 제조업의 경우 1963년생과 비교하여 퇴직 연령과 소득 모두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63년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관련 공기업 및 관련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퇴직과 소득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58년~1961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산업별 퇴직 연령과 소득도 대체로 1962~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해당 통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8~1961년생 자료에 대해서는 <별첨 1>을 참고하기 바란다.

6개의 산업별로 1958~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퇴직 연령과 소득을 살펴보면 산업별로 유사한 패턴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의 왼쪽 패널은 산업별 퇴직 연령, 오른쪽 패널은 해당 산업별 퇴직 소득을 각각 표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대체로 1958~1963년생에 걸쳐서 산업별로 퇴직 연령이 베이비붐 세대 출생연도별로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출생연도별로 유사한 퇴직 연령 패턴은 오른쪽 패널에서 유사한 퇴직 소득 패턴으로 이어지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즉, 산업별로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연령이 높은 경우 해당 업종에서의 소득 수준도 높아 두 변수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 시 산업별 연령 및 소득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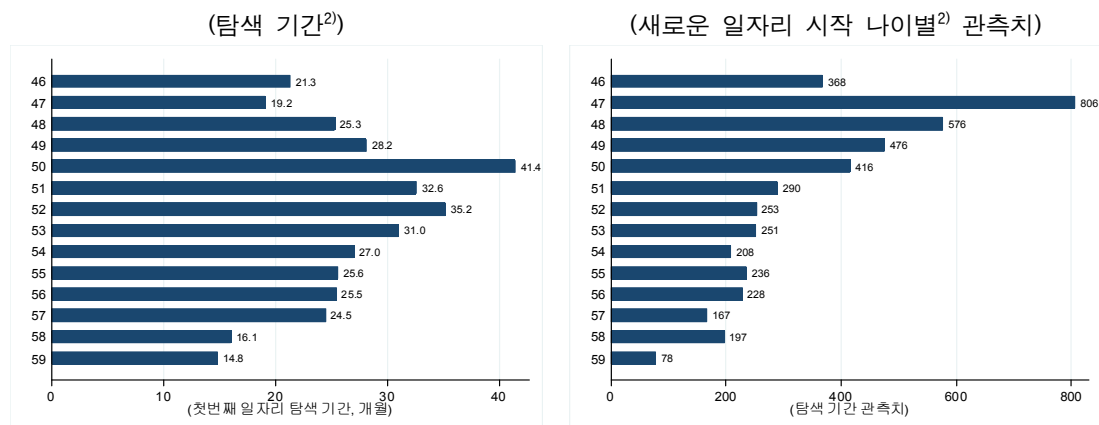
4.5 전북지역 1963년생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일자리 탐색 및 근속 기간 분석

전북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에 한정해서 46세 이후 최초 퇴직 이후, 즉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탐색 및 근속 기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기서 새로운 일자리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이거나 창업해서 자영업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여기서 일자리 탐색 기간은 46세 이후 최초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 (국민연금 납부실적 기준)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하는 시점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해당 탐색 기간에는 실제 구직활동 기간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시설 수료 과정 기간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로 한정된 이유는 직장 종사자로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탐색 기간 및 근속 기간에 초점을 두기 위함이다.

우선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재취업이든 창업이든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평균 26.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이 넘어가는 다소 긴 기간으로 기존 유사한 연구 결과와의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앞서 논의했듯이, 국민연금 납부 기록으로 식별한 새로운 일자리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활동 기간 외에도 창업을 준비하는 다양한 기간 및 재취업을 위한 새로운 기술습득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그림 15>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 이후 일자리 탐색 : 새로운 일자리 퇴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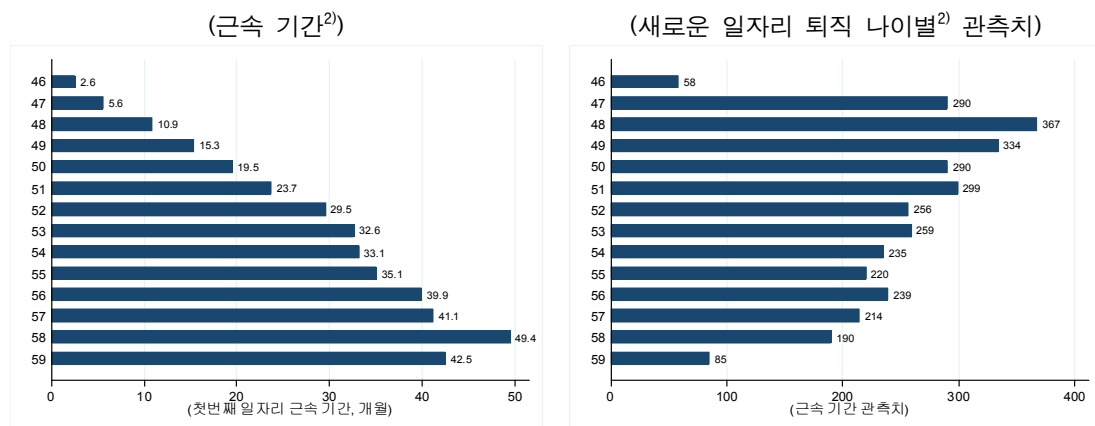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2) 2010년 이후 최초 퇴직 시점과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하는 시점 간의 차이를 의미, y 축은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하는 나이를 의미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산산

<그림 15>는 1963년생 전북지역의 베이비붐 세대가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까지 탐색 기간과 그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하는 나이별 관측치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왼쪽 패널을 살펴보면, 전북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하는 46세 이후 50세까지는 일자리 탐색 기간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흥미롭게도 이후의 기간에는 50세를 정점으로 탐색 기간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63년생이 50세에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하는 탐색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혹시 해당 연령대의 베이비붐 세대 다수

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탐색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림 15>의 오른쪽 패널을 살펴보면, 노동 공급은 그 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최초 퇴직 이후 47세에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1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하는 관측치 수는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단조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새로운 최초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평균 기간은 27.2개월로 나타나 사실상 해당 일자리를 탐색한 기간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은 1963년생 전북지역의 베이비붐 세대가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에서의 근무 기간과 그 일자리에서의 퇴직 나이와 관측치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왼쪽 패널을 살펴보면, 전북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새로운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그 일자리에서의 근무 기간이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58세에 새로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경우 4년이 넘는 49.4개월 동안 해당 일자리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쪽 패널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에서 48~51세에 퇴직하는 관측치 수가 가장 많으며 이후 새로운 일자리에서의 퇴직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해당 관측치 수도 비례하여 줄어드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6>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 이후 일자리 근무 : 새로운 일자리 근무 기준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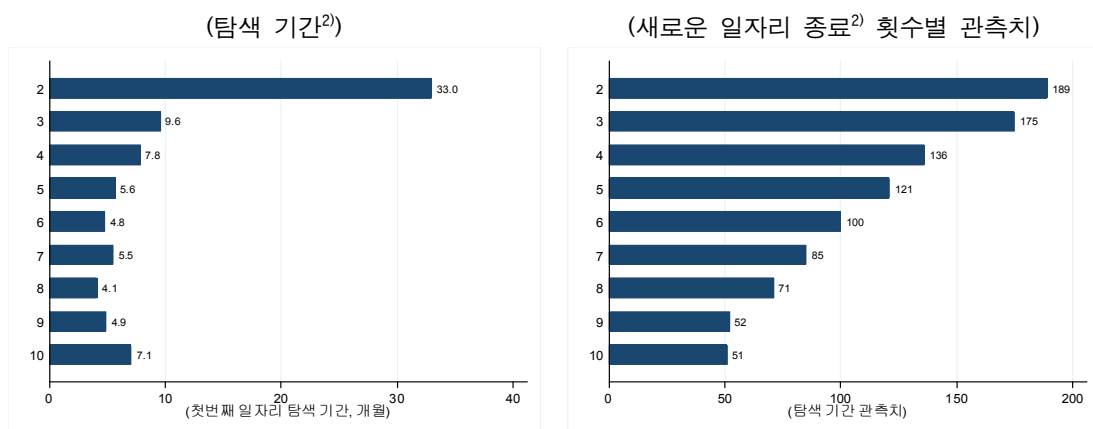
2) 2010년 이후 최초 퇴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에서 퇴사 시점과 해당 일자리에 입사한 시점 간의 차이를 의미, y 축은 새로운 일자리를 퇴직하는 나이를 의미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산산

<그림 17>은 앞서 분석과 같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첫 번째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까지의 탐색 기간과 이후의 재퇴직과 폐업 등 일자리 종료 횟수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왼쪽 패널을 보면, 생애 주된 퇴직을 포함하여 일자리 종료를 두

번 경험하는 경우 탐색 기간이 33개월로 압도하고 있다. 이후 일자리 종료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4~9개월 등 비교적 짧은 탐색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탐색 기간이 긴 경우 새로운 일자리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머무르는 등 2~3번의 일자리 종료만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른쪽 패널의 새로운 일자리 종료 횟수 별 관측치에서도 2~4번의 일자리 종료 횟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번이 넘어가는 일자리 종료 경험은 관측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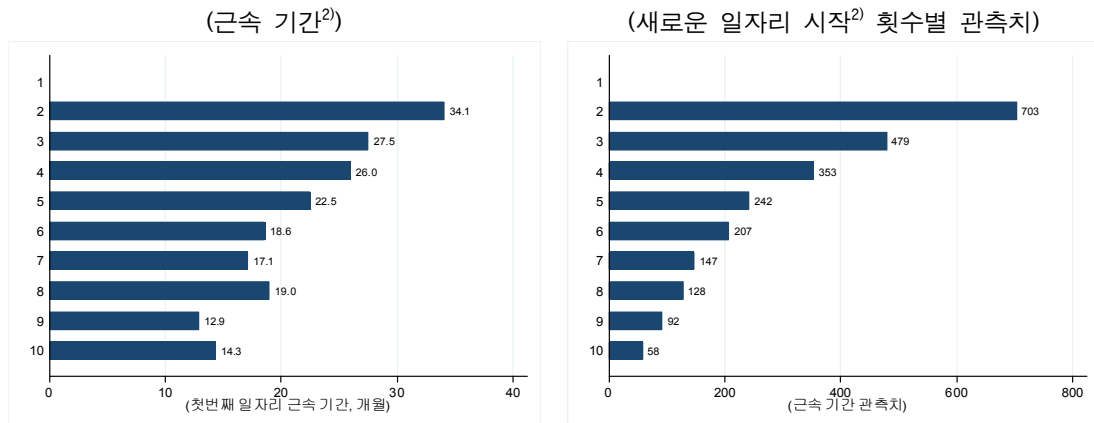
<그림 17>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 이후 일자리 탐색 : 일자리 종료 횟수 기준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2) 2010년 이후 최초 퇴직 시점과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하는 시점 간의 차이를 의미, y 축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퇴직과 폐업 등의 반복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종료 횟수를 의미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그림 18>은 일자리 시작 횟수 기준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의 첫 번째 일자리의 근속 기간과 해당 관측치를 살펴본 것이다. 즉, 생애 주된 직장 퇴직 이후의 첫 번째 일자리의 근속 기간이 짧은 경우 이후의 일자리 시작 횟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시작 횟수도 2~3번 정도가 관측치 수에서 압도하고 있으며 5번이 넘어가는 새로운 일자리 시작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7>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 이후 일자리 근속 : 일자리 시작 횟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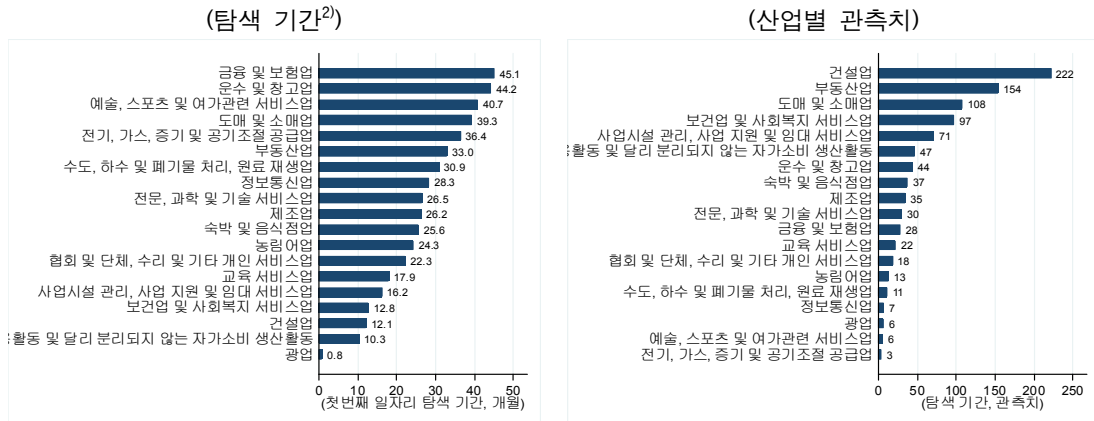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2) 2010년 이후 최초 퇴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에서 퇴사 시점과 해당 일자리에 입사한 시점 간의 차이를 의미, y 축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과 창업 등의 반복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시작 횟수를 의미. 다만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이후 첫 번째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했던 관측치가 이후의 새로운 일자리를 다시 시작하는 관측치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1”은 관측치가 없음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그림 19>는 산업별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이후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첫 번째 일자리의 탐색 기간과 관측치를 보여준다. 우선 왼쪽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소득이 높았던 산업에서 탐색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은 중간 정도 탐색 기간을 보여준다. 오른쪽 패널의 산업별 관측치를 살펴보면 건설업, 부동산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관측치가 압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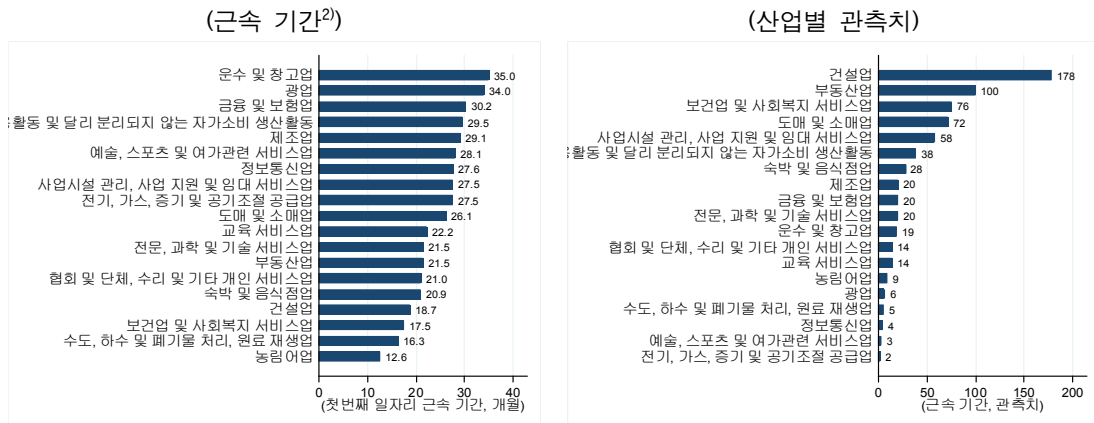
<그림 20>은 산업별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이후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첫 번째 일자리의 근속 기간과 관측치를 보여준다. 우선 왼쪽 패널은 대체로 소득이 높으며 탐색 기간도 길었던 산업에서 이후의 근속 기간도 더 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오른쪽 패널의 산업별 관측치는 <그림 19>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 이후 일자리 탐색 : 산업별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2) 2010년 이후 최초 퇴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에서 퇴사 시점과 해당 일자리에 입사한 시점 간의 차이를 의미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그림 20>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 이후 일자리 근속 : 산업별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2) 2010년 이후 최초 퇴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에서 퇴사 시점과 해당 일자리에 입사한 시점 간의 차이를 의미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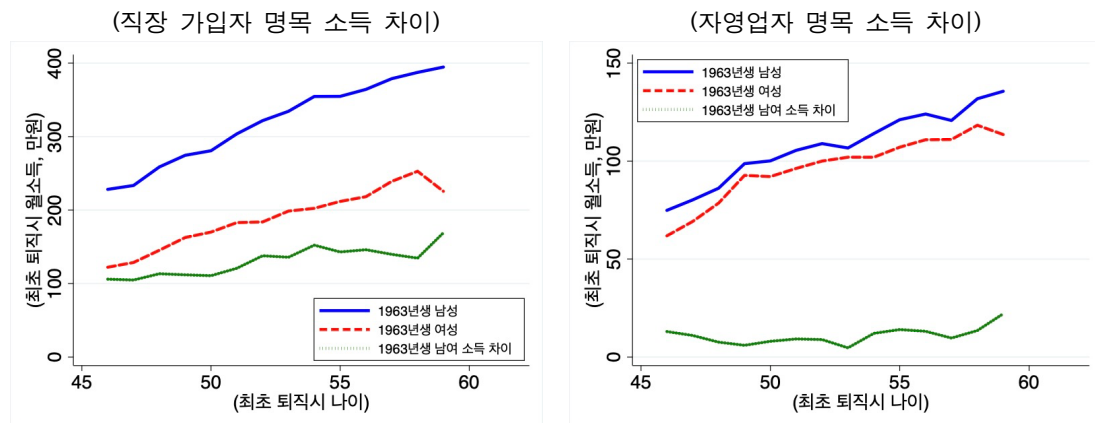
전북지역 1962~61년생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연령 및 일자리 시작 횟수 기준으로 근속 기간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1963년생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0세 퇴직 연령에 다수의 관측치가 집중되는 것은 국민연금 납부 종료 연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그림에 대해서는 <별첨 2>를 참고하기 바란다.

4.6 경기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분석

본 섹션에서는 경기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만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후의 소득과 일자리 이동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우선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도 전북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그림 4>)와 유사하게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 더 높은 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남녀 간 100만 원 이상의 소득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 남녀 간 소득 차이는 55세 이후에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해당 격차가 더 확대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전북지역과 유사하게 남녀 간 소득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북지역 1963년생의 경우(<그림 4>) 남녀 간 소득차이가 거의 없거나 최초 퇴직 나이에 따라서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경기지역의 경우는 남성 자영업자가 여성에 비해서 약간이나마 모든 퇴직 연령대에서 더 높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경기지역 1963년생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¹⁾ 시 남녀 간 소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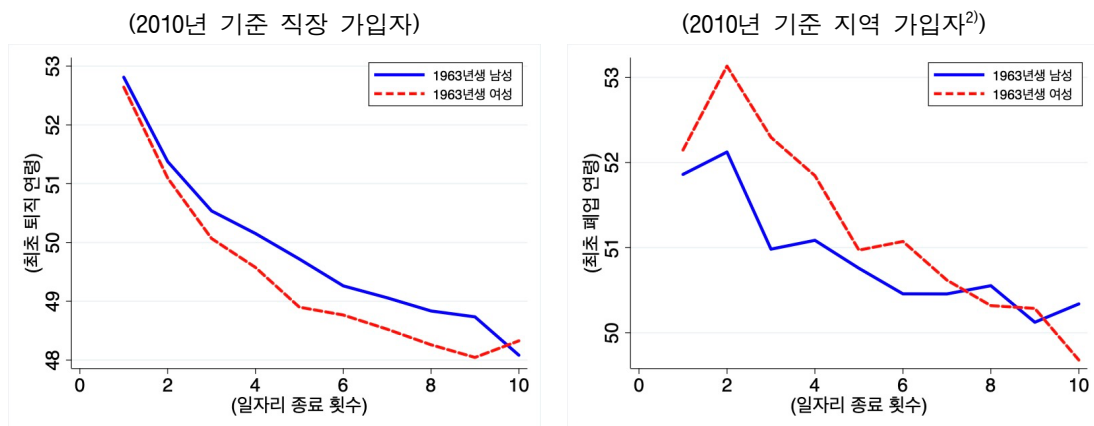


주 : 1) 2010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그림 22>와 <그림 23>은 경기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시점의 연령과 소득 그리고 이후의 새로운 일자리 종료 횟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림 5>와 <그림 6>에 나타난 전북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행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종료할수록 보다 많은 직장 탐색과 창업 등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다수의 재퇴직과 폐업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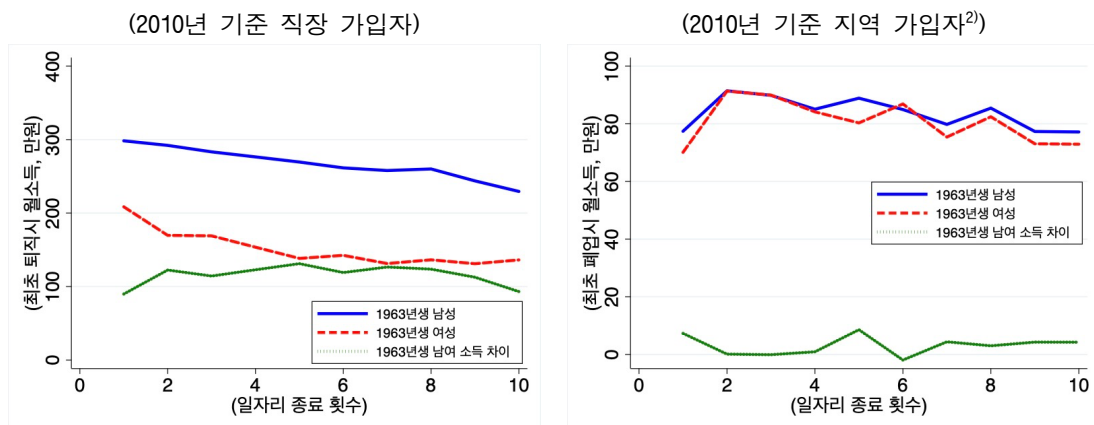
고 할 수 있다. 이는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시의 소득에도 차이를 발생시킨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생애 주된 직장에서 더 오래 머물다가 퇴직하는 경우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도 전북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에서 유사하게 발견되는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2> 경기지역 1963년생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¹⁾ 연령과 이후 재퇴직(또는 폐업) 횟수



주 : 1)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연령대별 최초 퇴직 또는 폐업 시점으로 식별
 2) 자영업자 및 임의 가입자 등이 포함되나 대다수는 자영업자로 판단됨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그림 23>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¹⁾ 시 소득과 이후 재퇴직(또는 폐업)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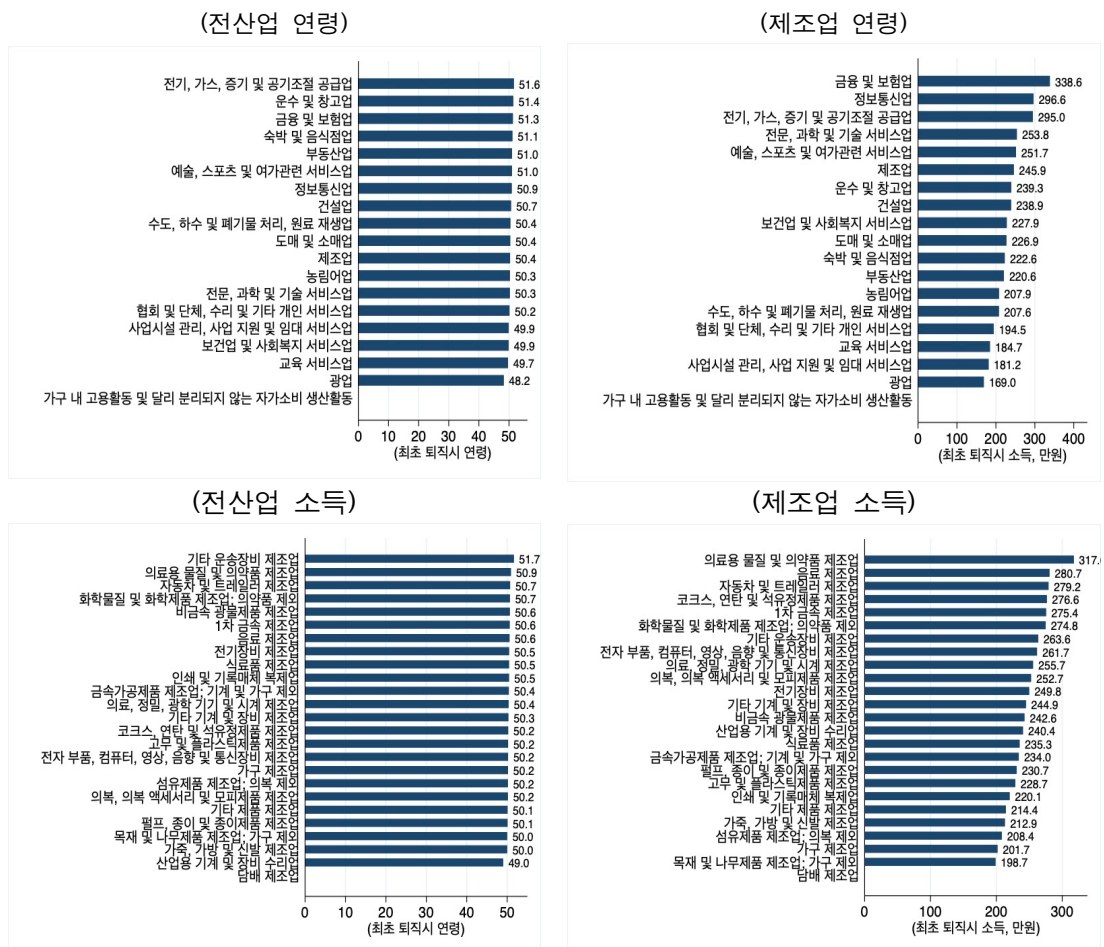


주 : 1)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연령대별 최초 퇴직 또는 폐업 시점으로 식별
 2) 자영업자 및 임의 가입자 등이 포함되나 대다수는 자영업자로 판단됨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그림 24>는 경기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직장 가입자 기준 산업별로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연령과 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

에서는 <그림 11>에 나타난 전북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으로 세분류하는 경우에도 두 지역 간 상당한 유사성이 관측된다. 다만 경기지역과 전북지역의 제조업 구조의 차이 등으로 하위분류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보인다. 이상의 경기지역 1963년생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행태가 대체로 수도권 내지는 더 나아가 전국적인 모집단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는 표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24> 경기지역 1963년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²⁾ 시 산업별 연령 및 소득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만 46세)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2) 남녀 자료의 단순 평균 수치로 전체 평균과 다소간의 차이 발생 가능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4.7 50세 전후 직장내 계속노동 요인 로짓모형 분석

본 섹션에서는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에 한해서 50세 이후에도 직장 가입자 지위

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이항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계속노동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우선 50세 이후의 계속노동 의지를 나타내는 y^* 는 관찰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이를 관찰 가능한 변수로 전환시키면 50세 이후 계속노동 여부 y 는 두 개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로 식 (1)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y = \begin{cases} 1 & \text{if } y^* = X\beta + \epsilon \geq 0 \text{ (50세이후계속노동)} \\ 0 & \text{if } y^* = X\beta + \epsilon \leq 0 \text{ (50세이전직장에서 퇴직)} \end{cases} \quad (1)$$

여기서 설명변수 X 에는 성별, 일자리이동 횟수, 퇴직 당시의 소득, 퇴직 당시의 연령 등 모두 4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사실 설명변수에는 베이비붐 세대 개인의 인구학적 배경, 건강상태, 임금외 소득 및 자산 등 여러 개인 요인이 추가되어야 하지만 국민연금 자료에서도 포착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4개의 요인만 고려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50세 이후의 계속노동 여부 y 는 상기의 이항모형에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확률변수로 이해되며, 50세 이후의 계속노동 사건은 누적확률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이용해 식 (2)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

$$\begin{aligned} p(\text{50세이후계속노동}) &= p(y=1) \\ &= p(X\beta) \\ &= F(X\beta) \end{aligned} \quad (2)$$

즉, 50세 이후 계속노동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확률분포함수의 $-\infty$ 에서 계속노동 사건까지의 면적으로 표시될 수 있다. 이 때 본 연구에서는 누적확률분포를 로지스틱(logistics)분포로 가정한 로짓(logit) 모형을 이용하였다. 누적확률분포 식 (3)과 같은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함에 따라 설명변수인 $X\beta$ 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예측된 확률은 모두 0과 1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F(X\beta) = \frac{1}{1 + e^{-X\beta}} \quad (3)$$

<표 5>에는 전북 및 경기지역의 1961~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직장 가입자 기준 50세 이후의 계속노동 여부 결정 요인에 대한 로짓모형 추정결과가 나타나 있다. LLR p-value로 살펴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북지역 1961년~1963년생의 경우 50세 이전에 일찍 퇴직하는 경우 이후 더 많은 일자리 이동 경험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미 50

세를 넘어가는 생애 주된 직장 퇴직 연령이 포함됨에 따라 연령이 높아지는 경우 50세를 넘어서 직장에서 계속 노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시점의 소득이나 남녀 성별은 50세 이후의 직장 생존 여부에 별다른 상관관계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북지역 1963~1961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계속노동 추정 결과는 경기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추정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시 연령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가운데 경기지역 1963년생 직장에 있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남녀 간에 계속노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서 50세 이후의 생애 주된 일자리 유지 확률이 통계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의 차이 등 향후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본 로짓모형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의 개별 요인이 다수 누락되어 있는 모형으로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사후적 상관관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베이비붐 세대 50세 이후 계속노동 로짓모형 추정 결과

설명 변수명	전북지역			경기지역
	1963년생	1962년생	1961년생	1963년생
성별(여성=1, 남성=0)	0.0876 (0.299)	-0.0435 (0.253)	-0.0165 (0.611)	-0.0916*** (0.001)
생애 주된 직장 ¹⁾ 퇴직시 소득	-0.2128*** (0.009)	0.0303 (0.466)	0.0541 (0.137)	-0.0102 (0.694)
생애 주된 직장 ¹⁾ 퇴직 후 일자리이동 횟수	-0.1810* (0.070)	-0.1352*** (0.005)	-0.0668* (0.095)	0.0235 (0.439)
생애 주된 직장 ¹⁾ 퇴직시 연령	7.9427*** (0.000)	2.1390*** (0.000)	1.4403*** (0.000)	6.6408*** (0.000)
관측치 수	4,897	6,990	6,836	42,064
LLR p-value	0.000	0.000	0.000	0.000
Pseudo R-square	0.8303	0.3641	0.0472	0.8094

주 : 1)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연령대별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국민연금 빅데이터 센터에 기록되어 있는 직장 및 자영업자 가입자 전체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북지역 1958~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퇴장과 지속에 대한 방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기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퇴장과 지속에 대해서도 간략한 분석을 통해 전북지역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출생연도별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시점과 당시의 소득 수준, 퇴직 이후의 일자리 이동 행태, 산업별 특징,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까지의 탐색 기간 및 근속 기간에 대한 방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북지역 1958~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평균 50.4세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거나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자료 단절에 따른 연령효과를 조정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1963년생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시점은 53세 정도로 볼 수 있다. 1958년생부터 시작하여 1963년생까지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연령을 꾸준히 높아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연령이 높아지는 것과 퇴직 소득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8~1963년생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 직장 가입자의 경우, 46세 이후 생애 주된 직장에서 1년 더 오래 머무르는 경우 일 년에 평균 19.6만 원(실질 기준 12.0만 원)씩 명목 소득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자영업자에서도 관찰되나 직장 가입자에 비해서 그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년 더 오래 주된 일자리에 머무르는 경우 3.9만원(실질 기준 1.9만원)씩 명목 소득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61~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시점의 남녀 간 실질소득 차이는 평균 108.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남녀 간에 실질 소득 격차가 1.3만원에 불과한 것과 대비되었다. 즉, 1961~1963년생 자영업자의 소득은 남녀 모두 직장 가입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이후 일자리 이동 횟수는 생애 주된 일자리 소득과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 퇴직 및 폐업 등 종료 횟수 기준으로 1회와 만 10회 종료 간의 소득 차이가 117.5만원으로 나타났다.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 시작 횟수 기준으로 1회와 10회 시작 간에는 100.9만원의 소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지역 1958~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되도록 오래 머무르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 횟수가 적은 경우 보다 높은 소득을 벌어들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자영업자도 유사한 패턴이 있으나 직장 가입자에 비해서 소득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장 가입자만 대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베이비붐 세대 출생 연도별로 산업별 주된 직장 퇴직 연령과 소득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별로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연령이 높은 경우

해당 업종에서의 소득 수준도 높아 두 변수 간 양(+)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 제조업 및 전문 서비스업 등의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연령이 평균적으로 높으며 이에 따라 퇴직 당시의 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여타 서비스업 및 농림어업의 경우 퇴직 연령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의약품, 화학제품 등에서 퇴직 연령과 소득에서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1963년생 직장 가입자의 경우 46세 이후 주된 직장 퇴직 후 새로운 일 자리를 시작까지의 탐색 기간은 평균 26.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실제 구직활동 시간과 함께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 재교육 기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퇴직 연령별로 보면 46~50세까지 일자리 탐색 기간이 증가하다 이후 연령이 높아지면서 탐색 기간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1963년생의 경우 주된 직장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에서의 근속 평균 기간은 27.2개월로 나타났다. 이러한 새로운 일자의 근속 기간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 종료 및 시작 횟수는 평균 2~4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높으며 탐색 기간이 길었던 산업에서 이후의 근속 기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1961~1962년생 베이비붐 세대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되었다.

여섯째, 경기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만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후의 소득과 일자리 이동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본 결과, 대체로 전북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도 경기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직장 가입자 기준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연령과 소득은 대체로 전북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경기지역 1963년생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행태가 대체로 수도권 내지는 더 나아가 전국적인 모집단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는 표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전북 및 경기지역의 1961~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직장 가입자 기준 50세 이후의 계속노동 여부 결정 요인에 대한 로짓모형 추정결과, 전북지역 1961년~1963년생의 경우 50세 이전에 일찍 퇴직하는 경우 이후 더 많은 일자리 이동 경험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시점의 소득이나 남녀 성별은 50세 이후의 직장 생존 여부에 별다른 상관관계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전북지역 추정 결과는 경기지역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추정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1963년생 직장

있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남녀 간에 계속노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서 50세 이후의 생애 주된 일자리 유지 확률이 통계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의 차이 등 향후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을 늘리는 정책과 이후 일자리 탐색을 지원하는 정책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이 여전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10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 종료 후 다수의 일자리 이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일자리 이동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아지는 대신 더욱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중고령자의 경우 근속 기간을 더 늘려나가는 등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을 좀 더 늦추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근속연수의 상승과 함께 노동 생산성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해당 일자리에서의 퇴직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대신, 중고령자의 소득 및 노동 시간 여건에 맞추어 직장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수요 공급에 맞추어 매칭됨에 따라 기업은 노동력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중고령자도 퇴직에 따른 소득의 절벽 대신 자신의 직무 역량을 일정하게 발휘해 나가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장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와 자영업자 간의 소득 차이가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 후 충분한 준비와 시장조사 없이 창업이 다수 이루어지면서 폐업 등이 반복되면서 전반적인 매출 기반이 약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창업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직업 재교육 시스템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여전히 남녀 간의 소득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50세~55세에서 계속 확대되다가 이후 60세까지는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 등의 효과가 중장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남녀 간 소득격차가 가장 큰 국가 그룹에 포함되는 만큼 실제 직장에서의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50세 이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전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빅데이터 전수 자료를 이용함에 따라 전북지역의 산업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도 크게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직

장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군산에서의 자동차 업체 철수 이후 실제 중고령 근로자들의 직장 이동과 전북지역 시군구 내에서 또는 광역 시도 지역 간 이동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북지역 청년층과 중고령자의 일자리 이동은 어떻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주제는 미래의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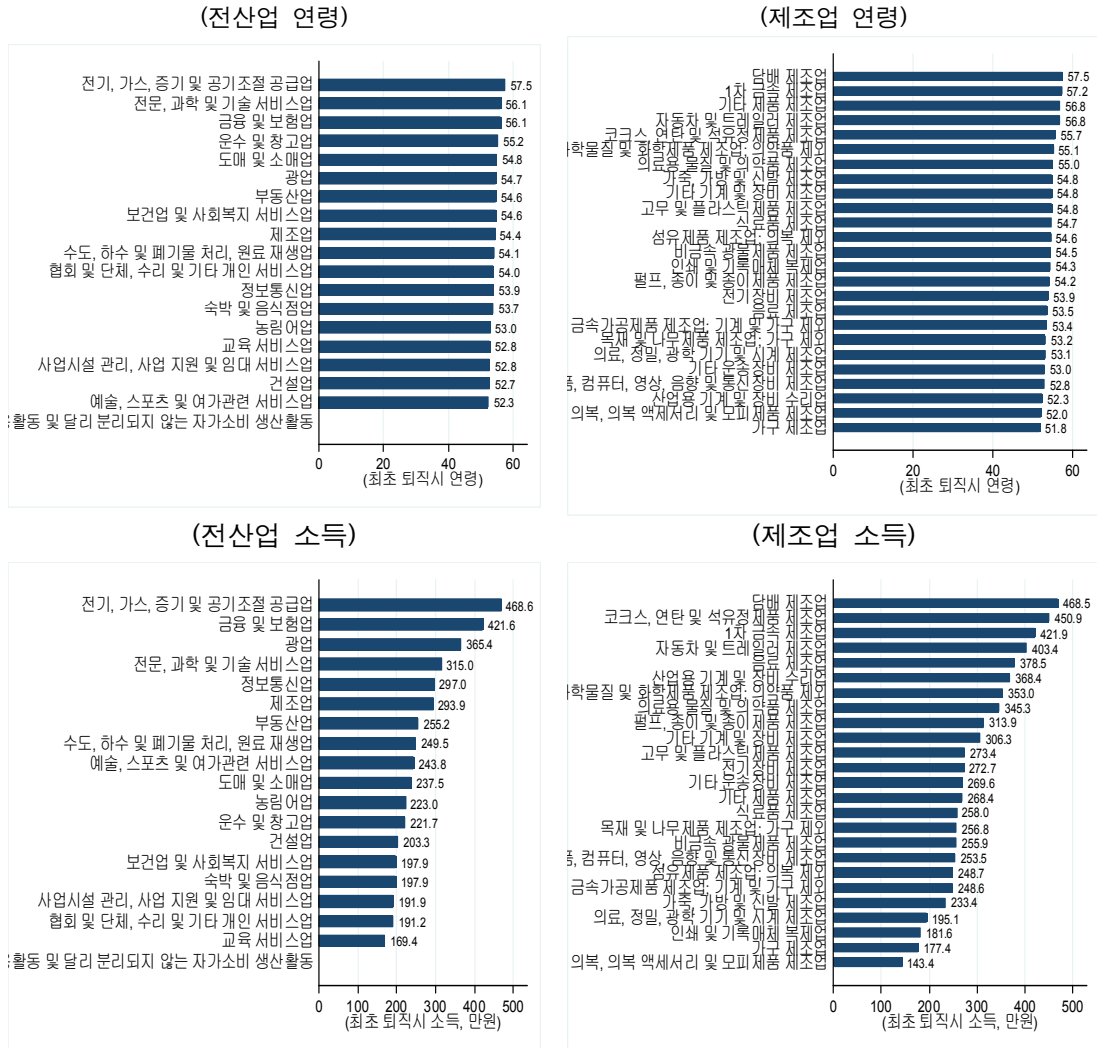
〈참고문헌〉

- 김희정 · 천혜정, 2016, “1차 베이비붐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간 일 가치관, 여가태도 및 은퇴준비행동 비교,” 『여가학연구』, 제14권 제3호, pp. 17-41.
- 박숙정 · 이영민, 2021, “자영업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점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21』, 제12권 제3호, pp. 2153-2161.
- 박지혜, 2022, “늦어지는 은퇴, 생애주기수지 적자에 대비하라,” 미래에셋투자자와연금리포트 No. 54, 미래에셋투자자와연금센터.
- 박태정, 2013,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pp.29-57.
- 방하남 · 신동균 · 이성균 · 한준 · 김지경 · 신인철, 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정책연구 2010-01, 한국노동연구원.
- 안준홍 · 이태, 2022, “중고령층 근로자의 퇴직 후 노동시장 복귀 및 재취업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45권 제3호, pp.71-108.
- 윤석명 · 방하남 · 김지경 · 황수경 · 손유미 · 장석인 · 최환용, 2011, “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정책개발 연구,”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휴먼뉴딜 종합연구 총서 11-05-0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윤영중 · 박환용, 2019, “베이비부머 은퇴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30권 제4호, pp.85-94.
- 이주영, 2020, “중 · 고령자 재취업 결정 요인 분석 : 임금 및 비임금 일자리 경쟁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44권 제3호, pp.1-22.
- 임기홍 · 백성준, 2014, “한국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후 주거 선택과 이동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제14권 제11호, 438.
- 장지연, 2003, “중 · 고령자의 경력이동 - 대안적 은퇴과정으로서의 근로시간단축과 자영업창업의 비중,” 『한국사회학』, 제37권 제2호, pp.95-121.
- 정호성 · 강성원 · 문외솔 · 박준 · 손민중 · 이찬영 · 이은미 · 이민훈 · 박번순, 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10. 10., 삼성경제연구소.
- 조동훈, 2014, “고령자 은퇴시점 결정요인 분석 : 세대별 요인을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제24권 제1호, pp.47-66.
- 최은영, 2015, “1,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준비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통계청 전주사무소, 2019, “전라북도 베이비부머와 에코세대의 인구 · 사회적 특성,” 보도자료.

함창모 · 남윤명, 2018,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8권 제2호, pp. 27-58.

<별첨 1>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별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및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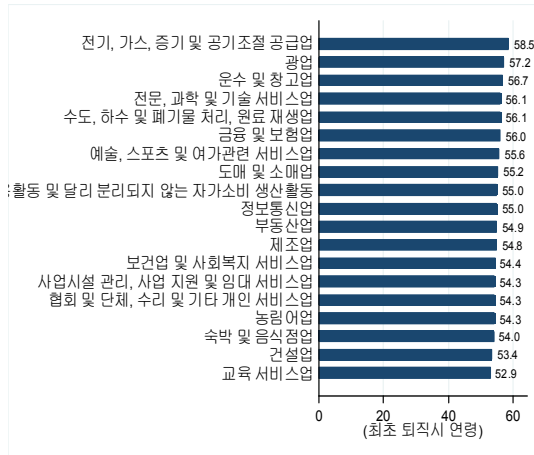
1961년생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 시 산업별 연령 및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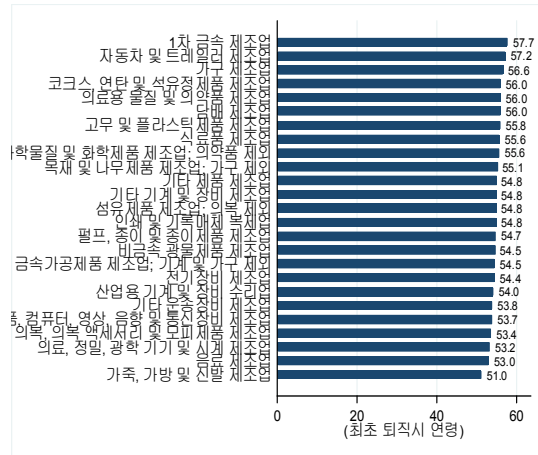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만 48세)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1960년생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 시 산업별 연령 및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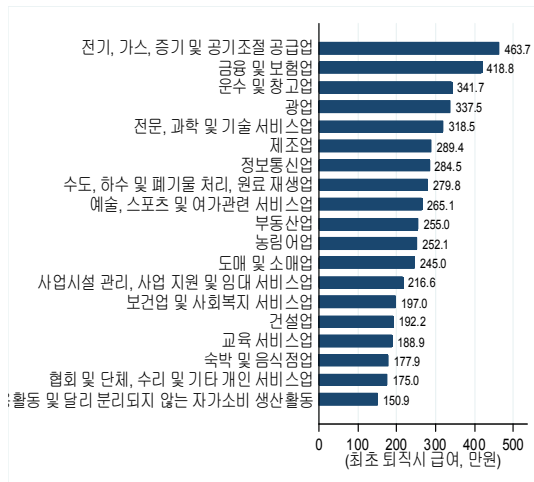
(전산업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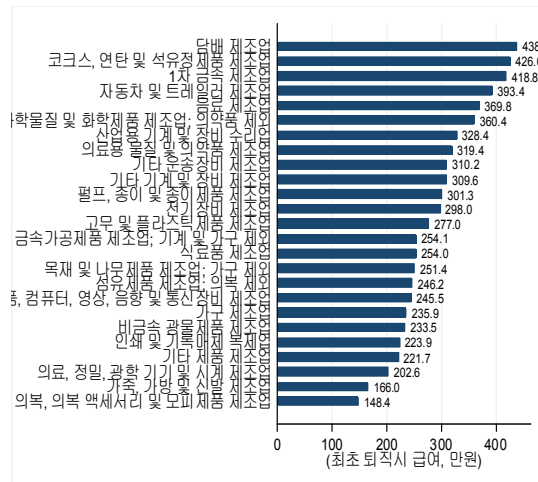
(제조업 연령)



(전산업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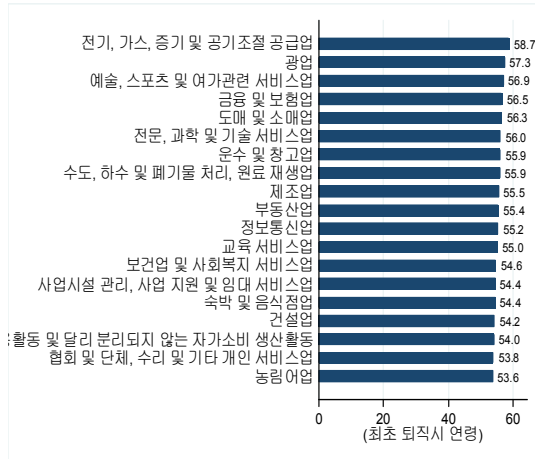
(제조업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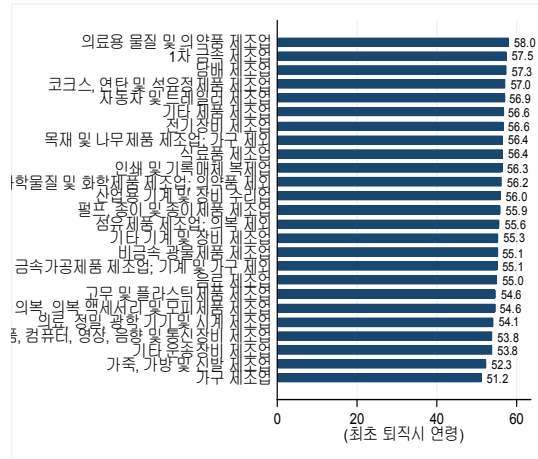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만 49세)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1959년생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 시 산업별 연령 및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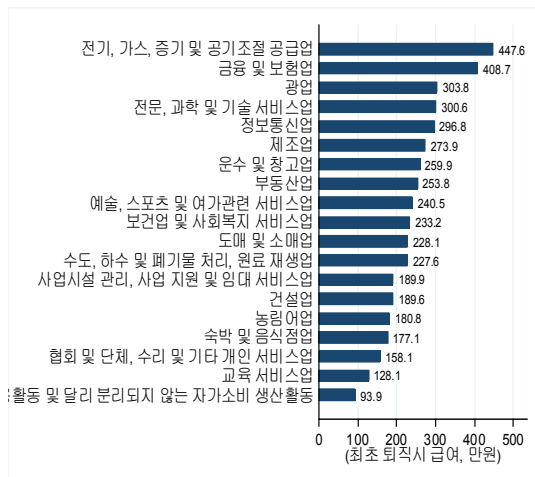
(전산업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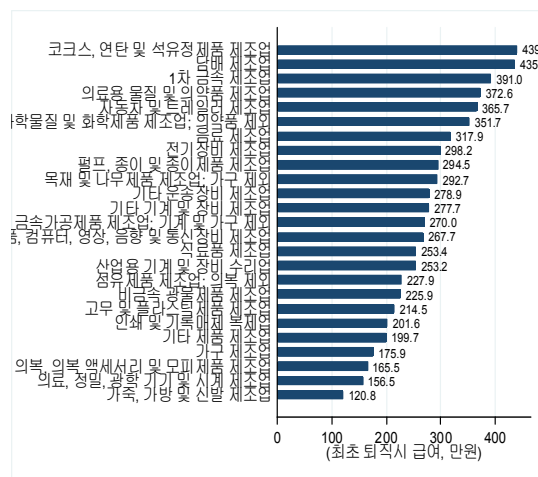
(제조업 연령)



(전산업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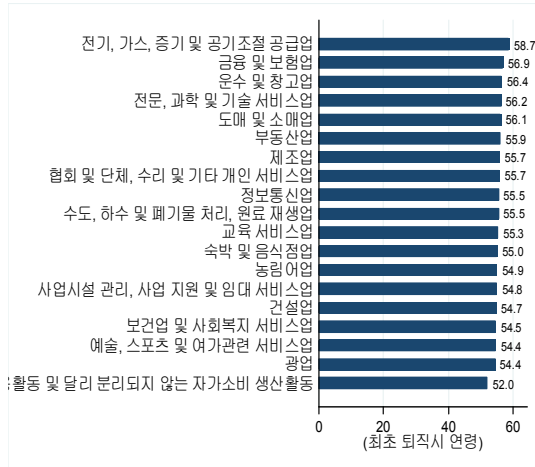
(제조업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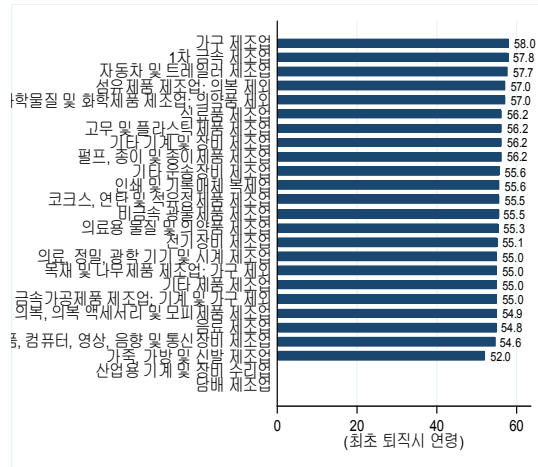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만 50세)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1958년생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 시 산업별 연령 및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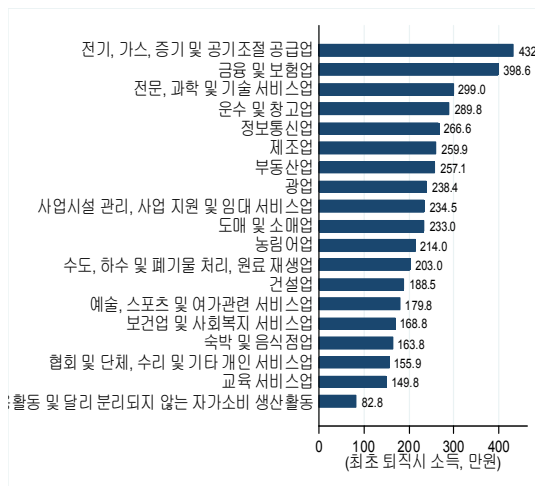
(전산업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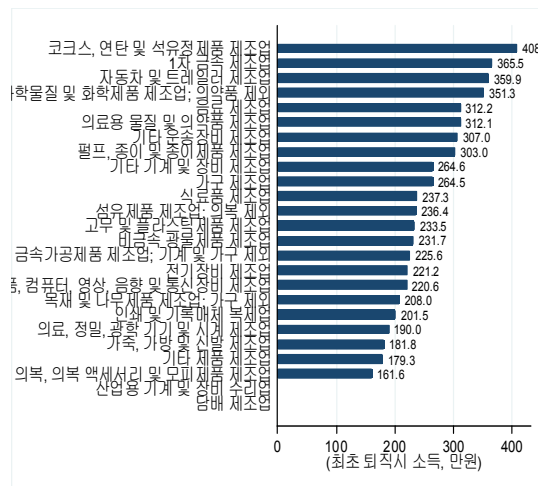
(제조업 연령)



(전산업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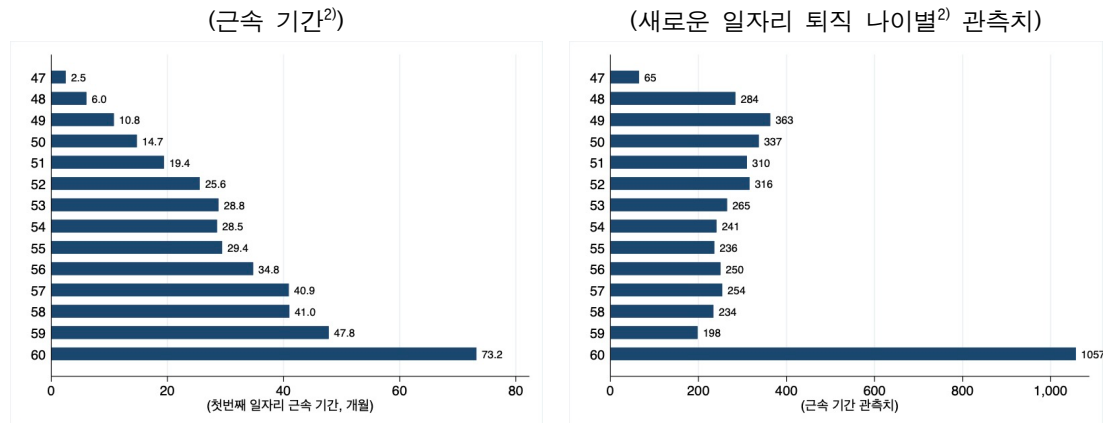
(제조업 소득)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만 51세)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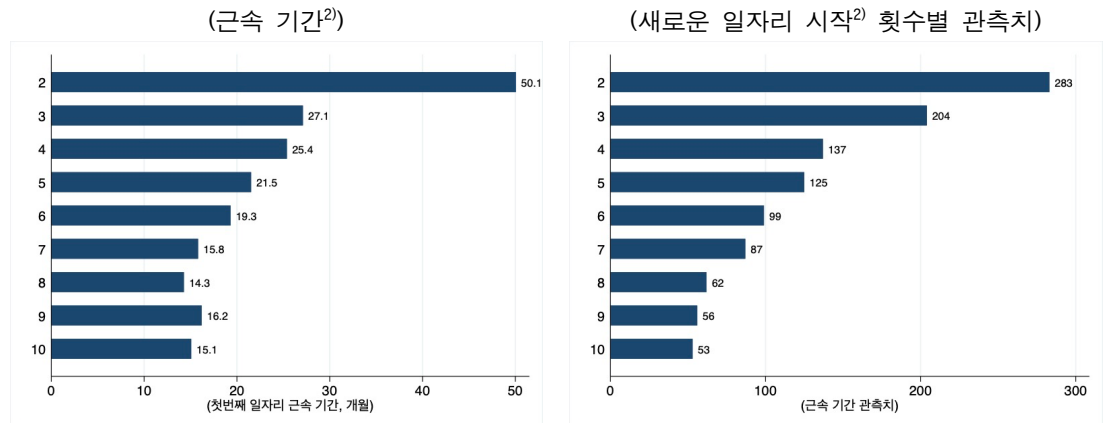
<별첨 2> 전북지역 1962~1961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 근속 기간

1962년생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 이후 일자리 근속 : 새로운 일자리 근속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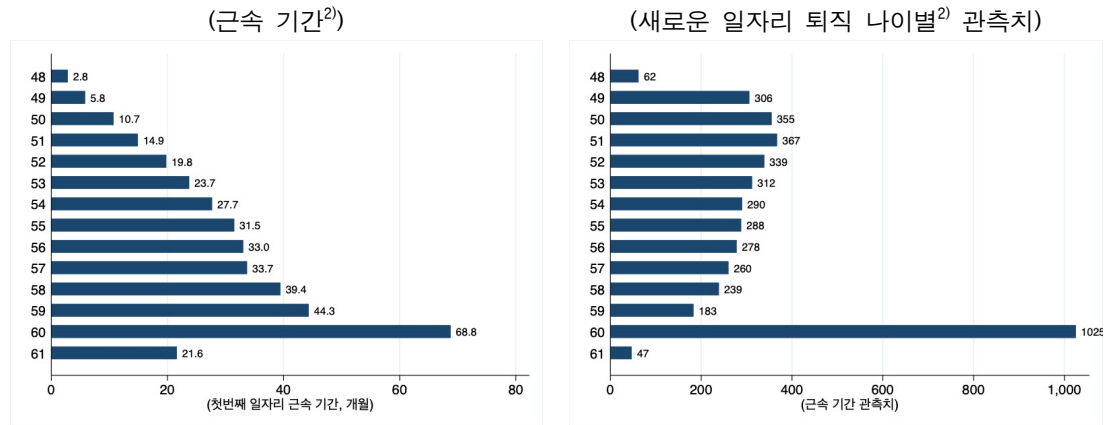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2) 2010년 이후 최초 퇴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에서 퇴사 시점과 해당 일자리에 입사한 시점 간의 차이를 의미, y 축은 새로운 일자리를 퇴직하는 나이를 의미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1962년생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 이후 일자리 근속 : 일자리 시작 횟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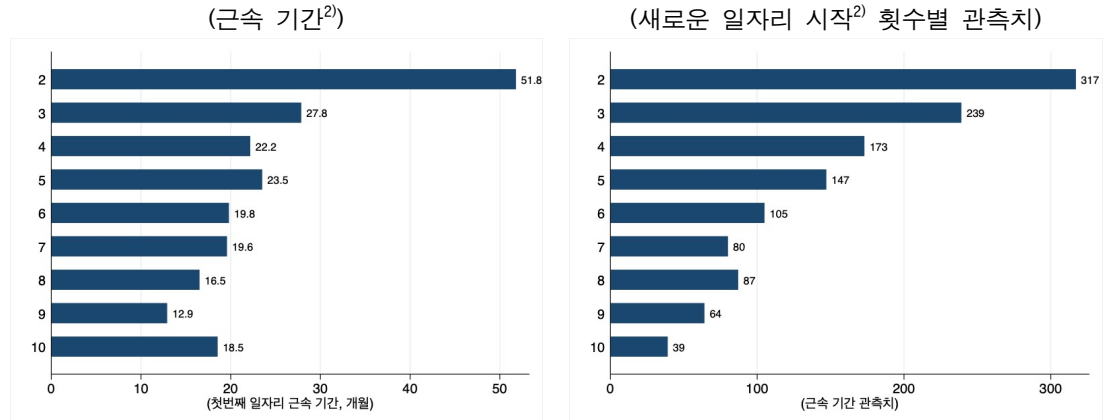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2) 2010년 이후 최초 퇴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에서 퇴사 시점과 해당 일자리에 입사한 시점 간의 차이를 의미, y 축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과 창업 등의 반복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시작 횟수를 의미. 다만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이후 첫 번째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했던 관측치가 이후의 새로운 일자리를 다시 시작하는 관측치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1”은 관측치가 없음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1961년생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 이후 일자리 근속 : 새로운 일자리 근속 기준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2) 2010년 이후 최초 퇴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에서 퇴사 시점과 해당 일자리에 입사한 시점 간의 차이를 의미, y 축은 새로운 일자리를 퇴직하는 나이를 의미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

1961년생 베이비붐 세대 생애 주된 직장 퇴직¹⁾ 이후 일자리 근속 : 일자리 시작 횟수 기준



주 : 1)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이며, 2010년 이후 관측되는 최초 퇴직 시점으로 식별
 2) 2010년 이후 최초 퇴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에서 퇴사 시점과 해당 일자리에 입사한 시점 간의 차이를 의미, y 축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과 창업 등의 반복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시작 횟수를 의미. 다만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이후 첫 번째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했던 관측치가 이후의 새로운 일자리를 다시 시작하는 관측치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1”은 관측치가 없음
 자료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시산